

T · R · A · D · E · 目 · 圖 · 圖 · 圖 · 圖 · F · O · C · U · S

2022년 10호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신산업연구실 안병선 수석연구원

Trade Focus 2022년 10호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발행인 구자열

편집인 조상현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행일 2022년 5월 23일

디자인·인쇄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

CONTENTS

● 요약	1
● I. 연구 배경 및 방향	4
● II. 중국 경제의 양적성장(2000~2009년)	5
1. 투자-수출 주도 경제성장	05
2.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07
3. 민간기업의 성장에 따른 생산성 증가	08
4. FDI 유치정책	10
5. 가공무역제도	11
6. 선부론에 근거한 불균형 발전전략	12
● III. 양적성장에 따른 문제점	13
1. 생산능력 과잉	13
2. 소비-서비스 침체	16
3.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18
4. 불균형 심화	19
5. 부채비율 증가	21
6.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	22
● IV. 중국 경제의 질적성장으로 전환(2010년 이후)	24
1. 중국제조2025	26
2. 인터넷플러스(+)	29
3. 창업활화 정책(대중창업, 만중창신)	31
4. 신형도시화 정책	34
5. 신형인프라 건설	36
6. 신형소비	38
7. 녹색산업, 쌍탄소 정책	41
● V.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변화	45
1. 소비시장 공략 세분화	45
2. 도시군 특성별 맞춤 진출	51
3. 스타트업 협력 진출	55
● 결론 및 시사점	57

본 자료는 협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년 말 중국경제는 헝다그룹발 부동산 위기, 물류 차질 및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며 경착륙 우려가 불거졌다. 2022년 3월 양회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설정했지만 1분기 성장률은 4.8%로 목표치를 하회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시 봉쇄 조치 등은 중국경제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 다양한 요인들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중국 경제가 양적성장 전략에서 질적성장 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위론적 현상이다. 따라서 동 연구보고서에서는 중국 경제가 급격한 양적성장을 이룬 2000년대부터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시작한 2010년대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 경제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중국은 WTO가입 이후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투자-수출 주도로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중국의 투자부문은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연평균 약 23.8%씩 성장하였으며, 수출은 연평균 19.1%, 수입은 연평균 18.1%씩 증가하며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견인했다. 이러한 투자-수출 주도의 양적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농민공의 도시유입을 중심으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시장에 지속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민간기업 육성책으로 민간경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전략적인 FDI유치 정책을 통해 전 세계 잉여자본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넷째는 가공무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계공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외경제부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부론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불균형 발전전략을 도입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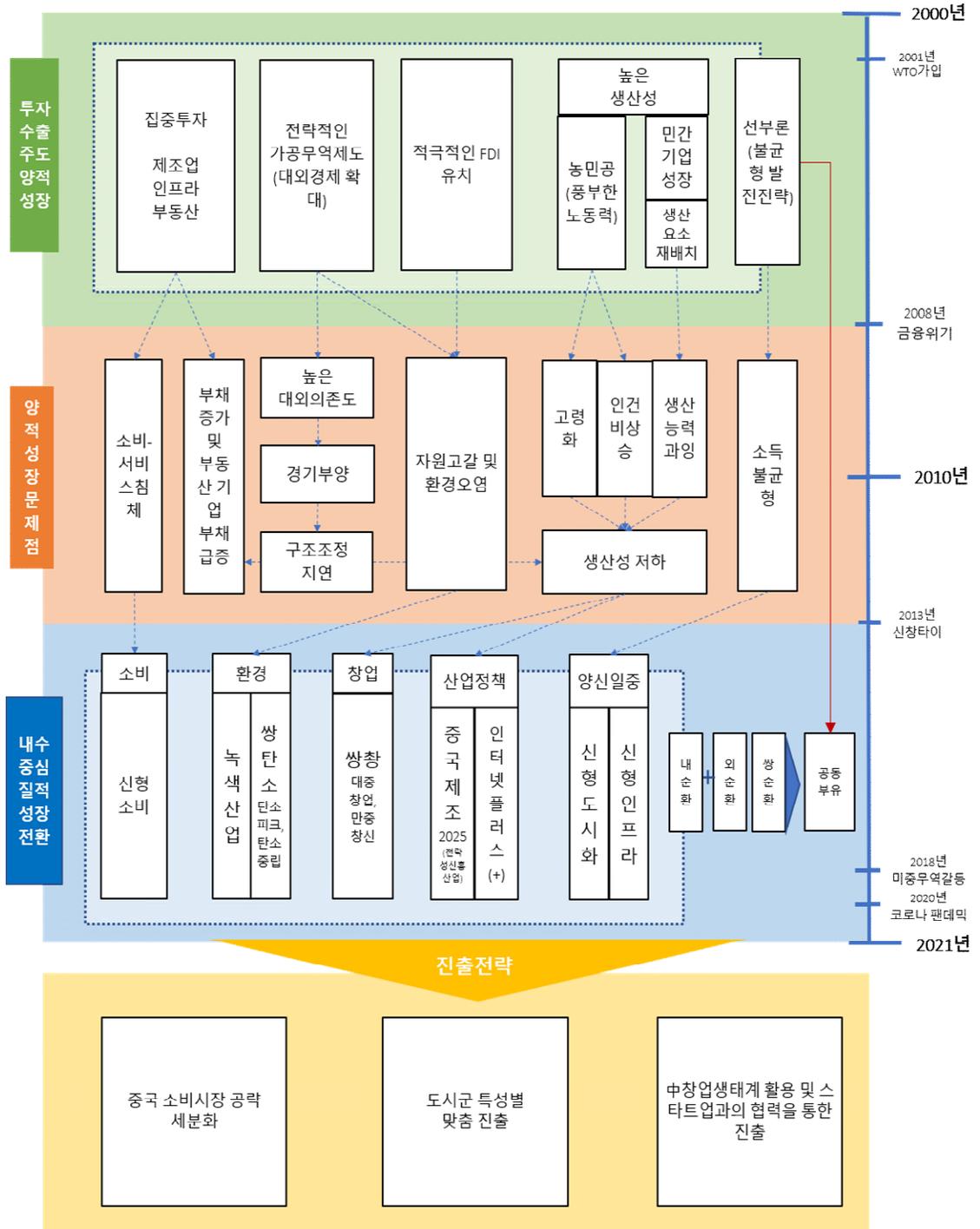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국경제는 급격한 양적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생산능력 과잉, 임금상승,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이며 둘째는 투자-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소비와 서비스 부문이 침체 된 한편 대외의존도는 높아져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셋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시행으로 총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형성된 부채는 중국 경제의 회색코블스로 지목되며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선부론에 기반한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도시-농촌간, 계층간, 지역간 소득불균형이 심각해진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고 석탄 중심의 산업구조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등 중국 경

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중국정부는 양적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2010년대부터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중국은 먼저 전략적 신흥산업을 시작으로 중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쌍황(대중창업, 만중창신)으로 불리는 창업지원책을 통해 중국 사회 전반의 혁신성과 역동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소비주도 성장을 위하여 28개 부처가 공동으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춘 신형소비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녹색산업 정책과 쌍탄소 정책으로 불리는 탄소중립 정책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중국 정부가 주창하는 공동부유 달성을 위한 쌍순환 전략 중 내순환 활성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경제의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은 경제 발전의 과정이며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기업들 역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소비시장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소비시장은 5.6조 달러 규모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이며 2030년까지 약 12.7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소비자는 지역별, 연령별, 유형별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과 소비자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정책은 소득불균형 해소와 내수활성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 기업들은 도시권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4년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창신을 제창한 이후 창업붐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창업생태계와 창업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향후 중국 시장진출에 있어 중국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과정>



I. 연구 배경 및 방향성

- » 2021년 중국경제는 8.1%의 GDP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시작된 하방압력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다시 제기됨

 - 2021년 중국 GDP성장률은 1분기 18.3%, 2분기 7.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3, 4분기에 들어 각각 4.9%, 4.0%로 하락하였으며, 202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8%를 기록
 - * 2022년 3월 양회에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설정
 - 이는 2021년 하반기 중 발생한 자연재해, 물류차질, 헝다그룹발 부동산 위기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 등에 따른 것임
-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양한 요인들이 중국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성장 둔화는 중국의 양적성장 모멘텀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

 - 1978년 개혁개방을 실시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과 함께 투자-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급격한 양적성장을 이룸
 - * 중국의 개혁개방은 1978년 1차 개방(정부 주도의 국지적이고 실험적인 개방)과 2001년 2차 개방(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급격한 양적성장에 따른 부작용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됨에 따라, 중국은 2010년대부터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 시행
- » 따라서 본 연구는 WTO가입이 이루어진 2000년대 이후부터의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 경제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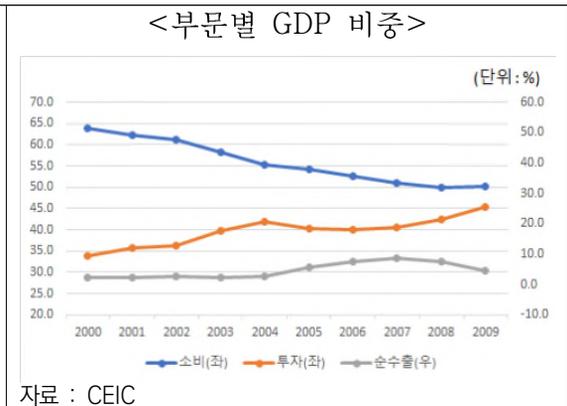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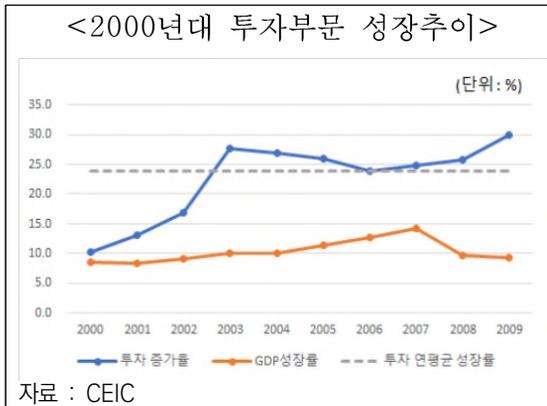
II. 중국경제의 양적성장(2000년대)

1 투자·수출 주도 경제성장

» (투자) 2000년대 중국 투자 부문은 연평균 약 23.8%씩 성장하며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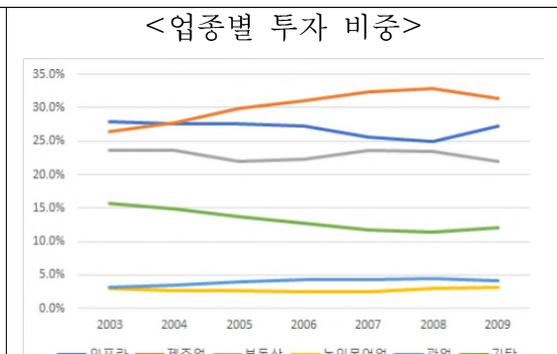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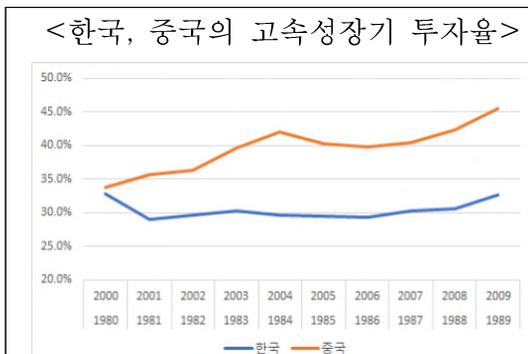
○ 투자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3.7%에서 2009년 45.5%로 증가

* 반면, 소비 부문의 GDP 비중은 2000년 63.9%에서 2009년 50.2%로 감소



○ 2000년대 중국의 투자율은 우리나라 고속성장기의 투자율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주로 제조업 (30.3%), 인프라(26.9%), 부동산(22.9%)에 집중

*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중국 부동산 기업의 높은 부채 형성을 야기시켰으며, 이는 중국경제를 위협하는 회색 코블스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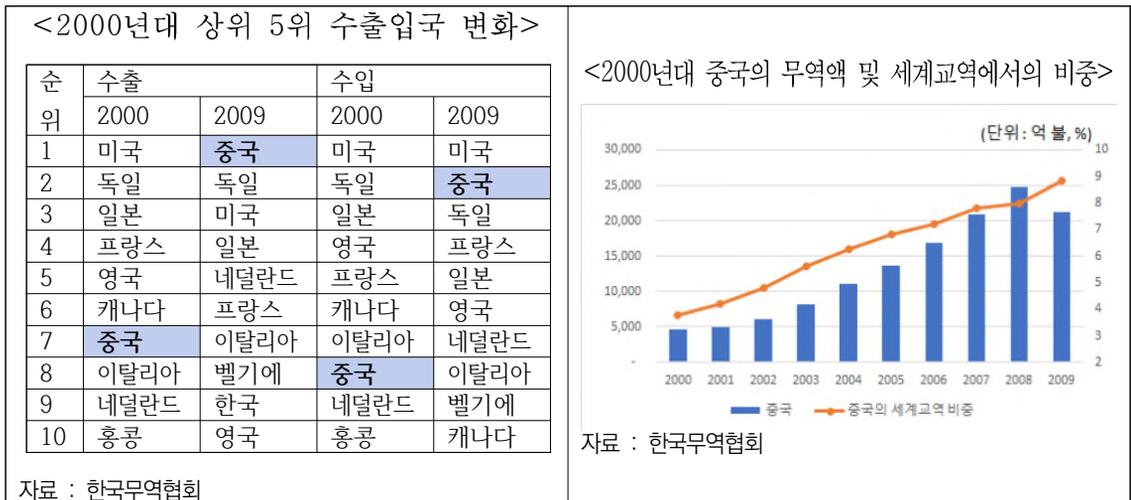


» (수출) 중국의 대외무역 역시 2001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

- 1990년대 연평균 약 13.6%씩 성장하던 중국의 수출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성장률이 19.1%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 역시 1990년대 13.4%에서 2000년대 18.1%로 증가



- 이에 따라 2000년대 중국의 수출국 순위는 세계 7위에서 1위로, 수입국 순위는 세계 8위에서 2위로 상승하였으며, 전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3.8%에서 2009년 8.8%로 5.0%p 증가



2

투자·수출 주도 성장전략의 원동력

- » 2000년대 중국의 경제적 여건과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의 시행은 중국의 투자·수출 주도의 양적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

〈양적성장의 원동력〉

<1>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4> 가공무역제도의 도입
<2> 민간기업 육성책 시행	<5> 선부론에 근거한 불균형 발전전략
<3>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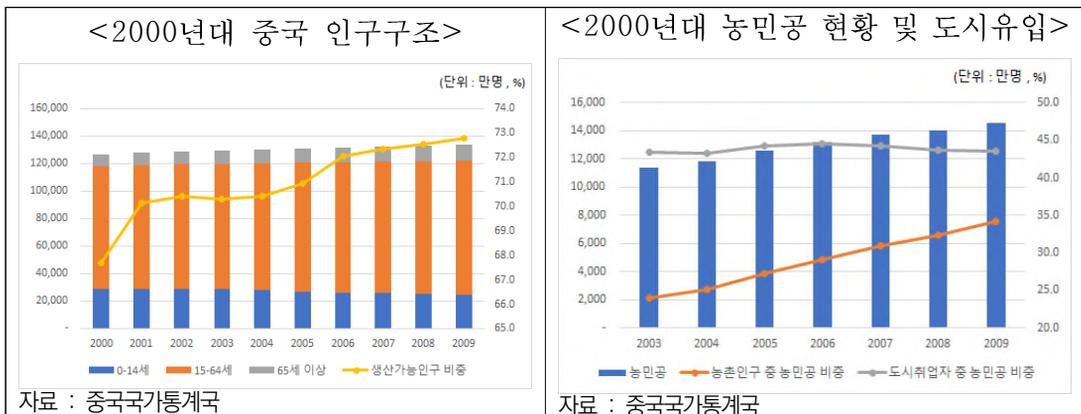
<1>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 » (인구 보너스) 1970년대 말 이루어진 산아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증가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8.9억 명에서 2009년 9.7억 명으로 지속 증가

- » (농민공) 농민공의 도시유입으로 시장에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지속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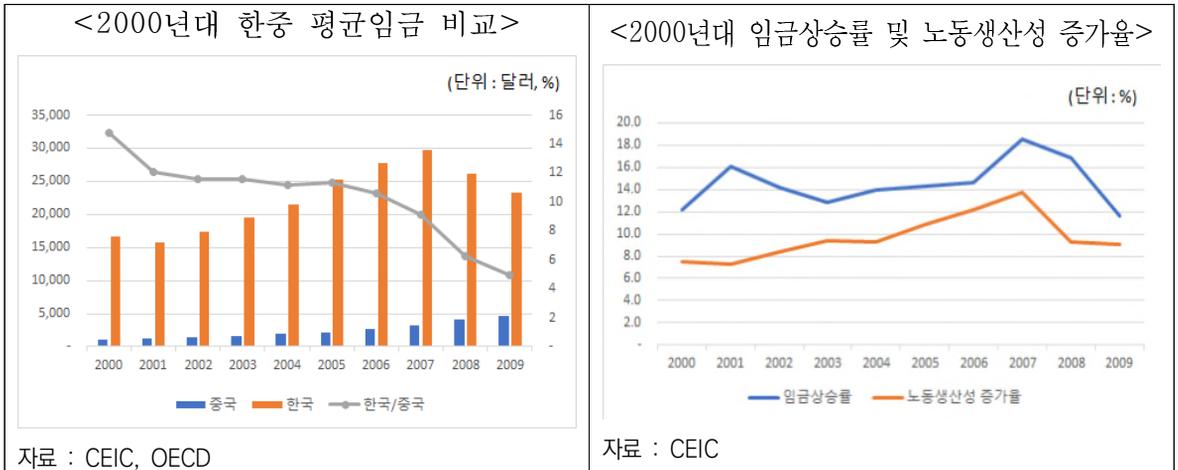
- 개혁개방 이후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로 농촌지역에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로 유입되는 농민공이 지속 증가
-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은 2003년 1.1억 명에서 2009년 1.5억 명까지 증가하였으며 도시취업자 중 40% 이상을 농민공이 차지



» (저임금) 중국 도시지역의 임금은 빠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 2001년 WTO가입 당시 중국 도시지역의 월평균 임금은 약 109달러(900위안)으로 우리나라 (1,292달러)의 1/12수준이었으며 이후 빠른 임금상승에도 2009년 우리나라의 1/5 수준에 머물

* 중국의 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지속 상회하여 저임금 노동력의 이점을 지속 상실



<2> 민간기업의 성장에 따른 생산성 증가

» (민간기업 육성책)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더불어 1990년대 후반 시행된 민간기업 육성책으로 중국 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확대

- 개혁개방 이후에도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던 중국은 1990년대 후반 국퇴민진 기조하에 시행된 민간기업 육성정책으로 민간부문이 활성화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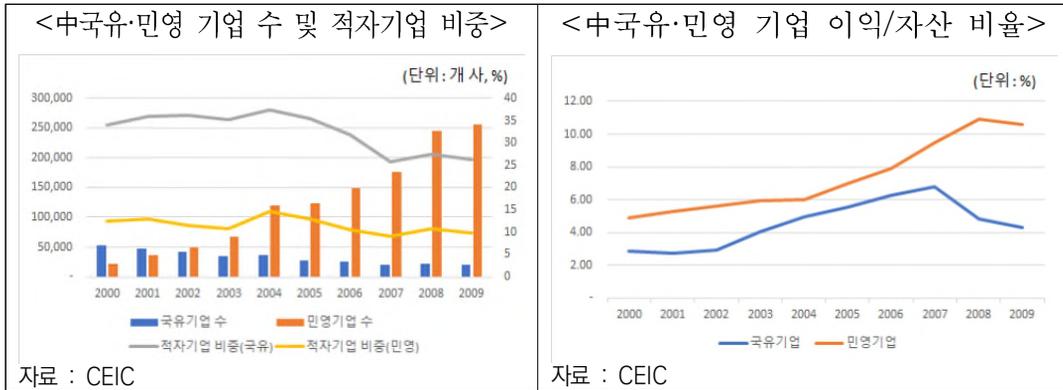
* 국퇴민진(國退民進) : '국가는 한걸음 물러서고 민간이 앞장선다'는 의미로 기존 국유기업 중심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시장 매커니즘 도입을 통한 경제체제 전환 정책

- 민간기업 육성책에 따라 민영기업 수는 2000년 22,128개에서 2009년 256,031개로 증가하였으며 적자기업 비중은 12.6%에서 9.8%로 하락

* 2000~2009년 국유기업 수는 53,489개에서 2009년 20,501개로 감소

○ 민간기업의 이익/자산 비율도 2000년 4.9%에서 2009년 10.6%로 두 배 이상 상승

* 2000~2009년 국유기업의 이익/자산 비율은 2.9%에서 4.3% 상승에 그침



» (높은 생산성 유지) 민영기업은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들로 인해 투자중심의 성장에도 높은 자본 한계생산성 유지

○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들은 호적제도로 인해 국유부문 취업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민영 기업으로 흡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기업은 낮은 자본/노동비율(Capital to Labor ratio, K/L)을 유지

○ 민간기업은 낮은 자본/노동비율이 유지됨에 따라 투자중심의 성장에도 높은 자본생산성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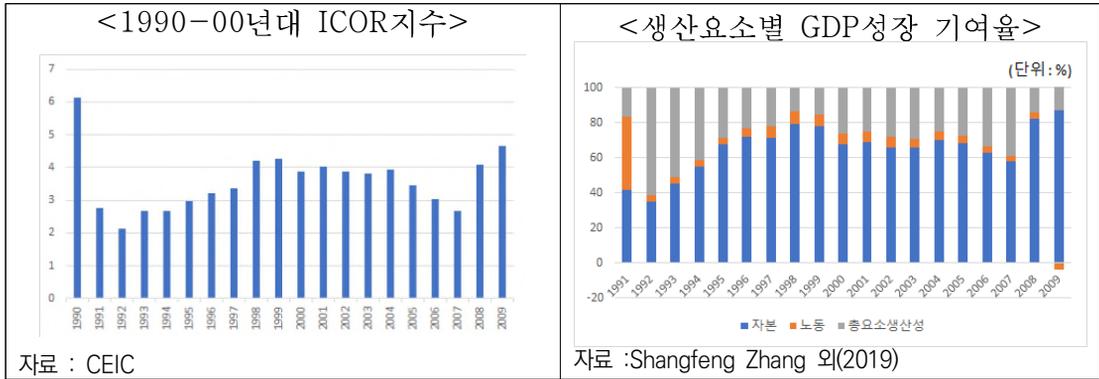
- 자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ICOR(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 한계고정자본지수)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 낮은 수준을 유지

* ICOR(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 한계고정자본지수) : GDP 1단위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자본의 양으로 ICOR지수의 하락은 자본의 한계생산성 향상을 의미

○ 또한 민간기업 육성책으로 생산요소가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민간기업으로 재배치 됨에 따라 총요소생산성도 향상

- 중국 총요소생산성의 GDP성장 기여율은 2000년 26.45%에서 금융위기 발생전인 2007년 39.11%까지 상승

* 총요소생산성 : 노동, 자본 이외의 기술혁신, 법, 제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생산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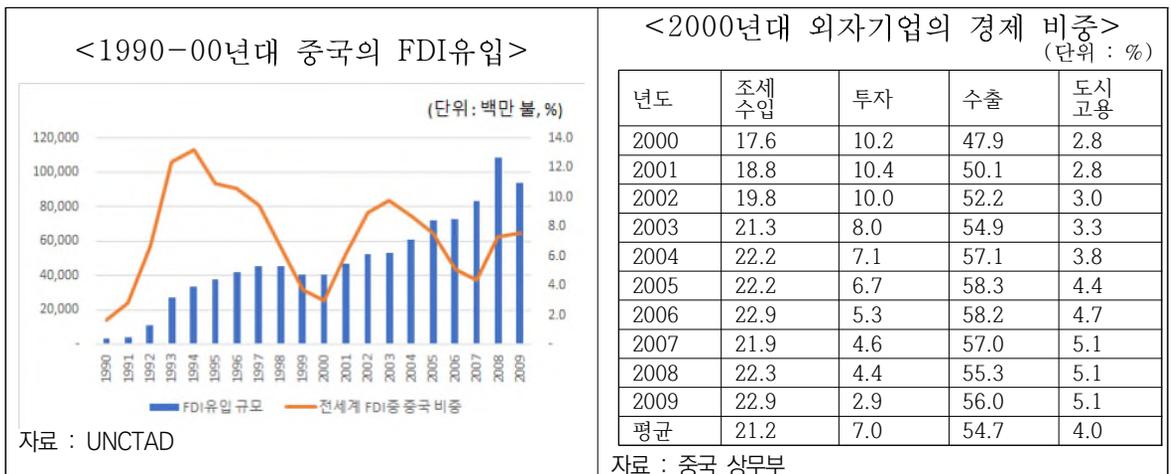
<3>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정책

» (FDI유치 정책)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초국민대우를 통해 인진라이(引進來)로 불리는 외자유치정책 시행

* 인진라이(引進來) : '들어온다'는 뜻으로 해외자본 유입을 통한 성장 전략을 의미

- 중국의 적극적인 FDI유치 정책은 중국의 자본형성, 고용 및 수출확대, 부족한 기술력 습득을 가능하게 함
- 중국의 FDI유치 규모는 1990년 34.9억 달러에서 2009년 940.7억 달러로 증가하여 미국에 이어 FDI유치 규모 세계 2위를 기록
- 2000년대 외자기업은 수출의 54.7%, 조세수입의 21.2%, 투자의 7.0%, 도시지역 고용의 4.0%를 차지

* 외자기업이 재투자한 기업의 고용을 고려할 경우의 비중은 약 10%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참고1> : 중국의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 시행배경과 화교자본의 역할>

- 타아시아 국가들은 차관도입을 주요 자본조달 수단으로 활용한 것과 달리 중국은 FDI를 중심으로 주요 자본조달 수단으로 활용함
- 이는 차관도입이 외채 증가의 부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톈안먼 사건으로 국제기구로부터 차관도입이 쉽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사기업에 대한 지원이 민감했기 때문
- 중국은 1992년 FDI 자유화 정책을 채택하며 중앙정부의 FDI 허가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업종, 지역제한을 해제하였으며 세제감면, 우대세율 및 장기토지사용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 한편, 풍부한 화교자본은 중국의 성공적인 FDI유치정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2000년 중국의 FDI 중 홍콩, 마카오, 타이완, 싱가포르 등 화교계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차지하였으며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는 FDI는 전체 FDI유입중 약 2/3를 차지함

<4> 전략적인 가공무역제도 실시

» (가공무역제도 도입) 중국은 가공무역제도를 도입하여 높은 관세를 유지하며 자국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외경제부문의 발전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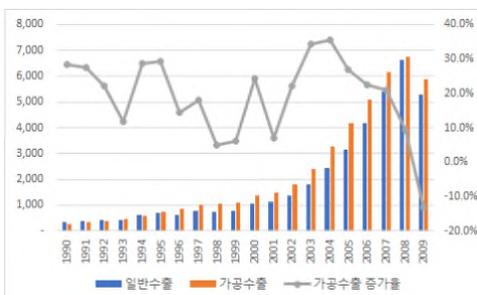
- 1990-00년대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은 연평균 19.1% 상승하며 대외경제부문의 성장을 견인

- 중국 가공무역은 1990년 254억 달러에서 2009년 5,298억 달러로 약 21배 증가

- 이에 따라 중국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8.3%에서 1999년 53.4%까지 상승한 후 소폭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09년에도 41.2%로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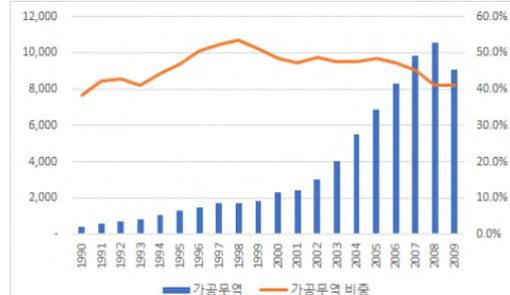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무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999년부터 가공무역 억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2000년대 가공무역은 여전히 중국 무역 중 높은 비중을 차지

<1990-00년대 중국 가공수출 추이>



자료 : CEIC

<1990-00년대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자료 : CEIC

<5> 선부론에 근거한 불균형 발전전략 시행

» (선부론) 중국 개혁개방의 기본원칙으로 이에 따라 중국은 불균형 발전전략을 시행

- 1985년 덩샤오핑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어도 좋다’는 의미의 선부론을 제창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불균형 발전을 시행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가 마련됨
- 이후 1989년 톈안문 사태, 1991년 소비에트 연합의 붕괴 등으로 개혁개방에 대한 내부논쟁이 발생하였으나, 1992년 덩샤오핑이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는 취지의 남순강화를 시행함에 따라 중국은 불균형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을 가속화 함
-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라 중국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룸

III. 양적성장에 따른 문제점의 발생

- » 2000년대 중반부터 양적성장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드러남

<양적성장에 따른 문제점>

<1> 생산능력 과잉	<4> 불균형 심화
<2> 소비-서비스 침체	<5> 부채비율 증가
<3>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형성	<6>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

<1> 생산능력 과잉 및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

- » (생산능력 과잉) 투자중심의 성장전략과 더불어 지방정부와 국유기업들의 실적달성을 위한 과잉·중복투자는 생산능력 과잉문제를 일으킴

- 생산능력 과잉문제는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2000년대 초에는 그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그 심각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2006년부터 생산능력 과잉 업종을 발표함
- 하지만 생산능력 과잉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라 오히려 가중됨
-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지속된 경기부양책으로 2013년 기준 중국의 전반적인 설비가동률은 72%, 제조업의 설비가동률은 70.8%를 기록하여 적정 가동률(79~83%)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특히 강철,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선박은 중국 5대 생산능력 과잉 업종으로 분류됨

<2013년 5대 생산능력 과잉업종 설비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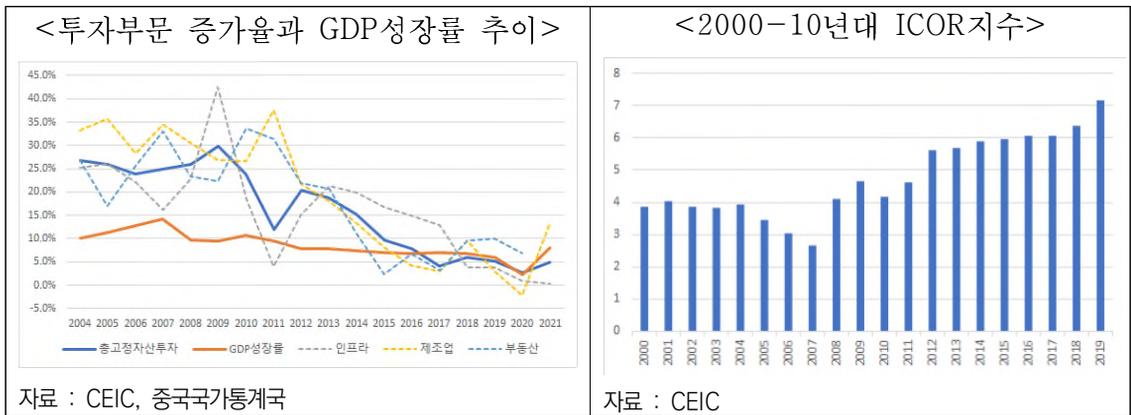
구분	설비가동률	비고
강철	72.0%	생산능력 10억 톤, 생산량 7.2억 톤, 전세계 생산량의 46% 차지
전해 알루미늄	71.9%	생산능력 2,765만 톤, 생산량 1,986만 톤, 전세계 생산량의 42% 차지
시멘트	73.7%	생산능력 30억 톤, 생산량 22.1억 톤, 전세계 생산량의 약 60% 차지
평판유리	73.1%	생산능력 10.4억 중상* 생산량 7.6억 중상, 전세계 생산량의 약 73.1% 차지
조선	75.0%	생산능력 8010만 DWT, 생산량 6010만 DWT

* 중상(重箱) : 유리의 무게단위로 1중상은 25kg임

» (자본생산성 하락) 생산능력 과잉으로 인한 유희설비의 증가는 신규투자를 억제시키고 자본 생산성을 저하시킴

-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 성장률도 2010년부터 하락세로 전환
- 2000년대 높게 유지되던 자본 생산성도 2010년부터 낮아짐

* ICOR지수의 상승은 자본생산성의 하락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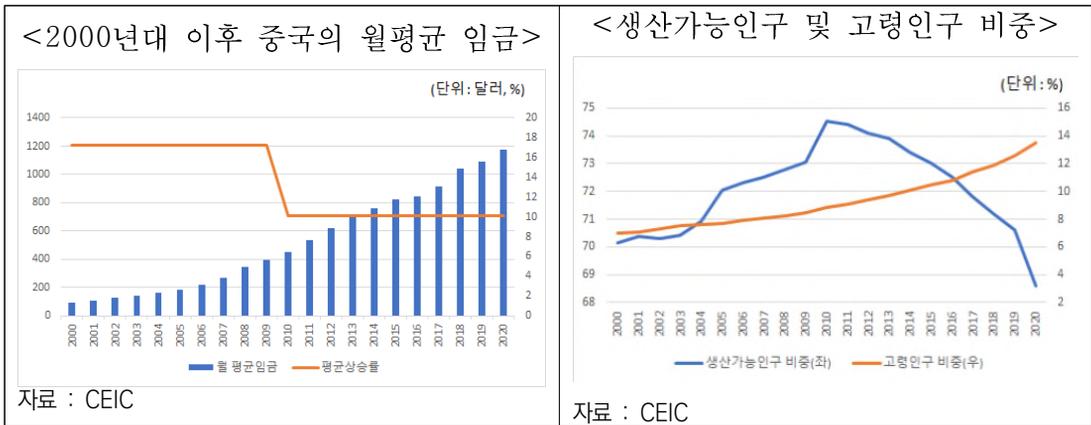
<참고²⁾ : 지방정부의 투자유인 정책과 낮은 도시화로 인한 과잉설비>

- 지방정부는 경제발전을 목표로 토지와 특혜를 제공하고 환경보호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하였으며 이는 생산요소 가격과 기업의 생산비용 체계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의 경쟁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가져옴
- 또한 일부 낙후기업이 계속 생존할 수 있게 만들거나 지역간 악성 투자 경쟁을 유발시킴
- 하지만 중국의 낮은 도시화율은 중국기업들로 하여금 과잉설비가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게 함
- 기업들은 철강의 60%, 시멘트의 70%, 평판유리의 80%, 전해알루미늄의 60%가 주택건설과 인프라 건설에 사용될 것으로 추산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을 퇴출시키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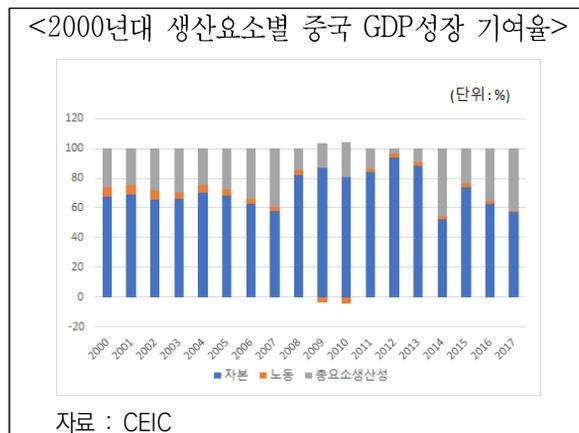
2) KIEP,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 현황과 대책

» (노동·중요소생산성 하락) 임금상승, 고령화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노동 생산성과 중요소생산성이 하락

- 중국의 임금은 2000년대 연평균 17.2%씩 상승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지속 하락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도 연평균 10.1%씩 상승하여 2020년 우리나라의 약 2/5 수준까지 상승
-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74.5%를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
 - 중국은 2001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1년 만인 2022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2017년 17년 소요)보다는 느리지만 일본(1994년, 24년소요)보다 빠른 수준임
 - * 고령화 사회 기준(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 (고령화 사회)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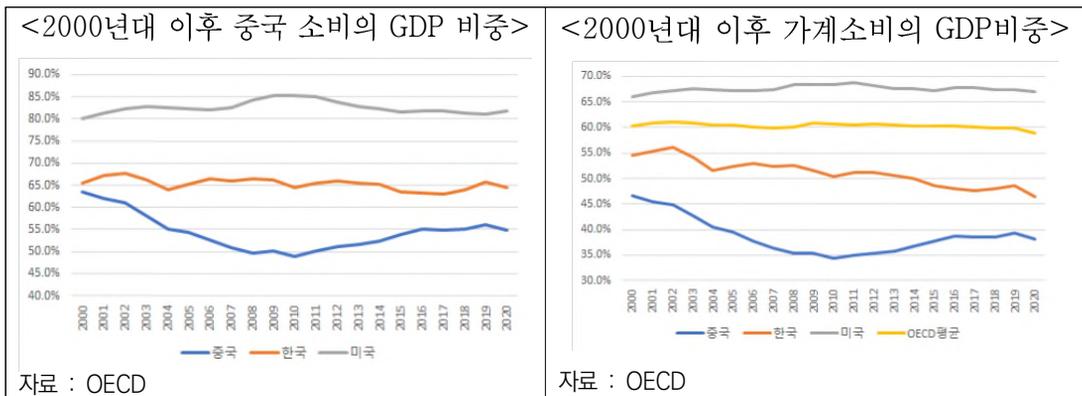
- 또한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2007년 39.11%까지 증가한 중요소생산성의 GDP성장 기여율은 2008년 14.17%로 급감



<2> 소비-서비스 부문 침체

» (소비 하락) 투자-수출 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소비 부문은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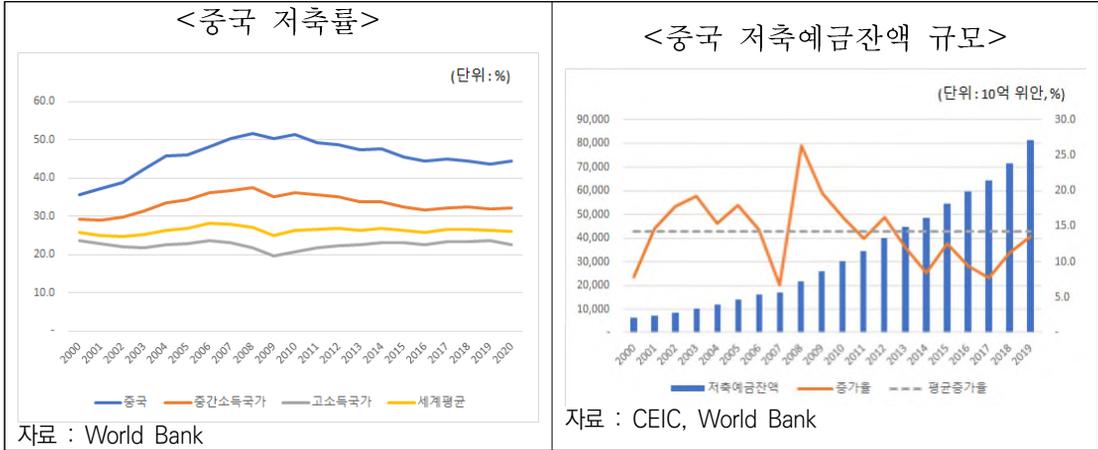
- 중국 경제에서 소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3.6%에서 2009년 50.1%까지 하락하였으며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46.7%에서 2009년 35.3%로 하락
 - 2010년대 들어 소비 부문의 GDP 차지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0년 기준 54.8%로 여전히 여전히 미국(81.7%), 우리나라(64.5%) 대비 낮은 수준이며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 38.1%로 미국(67.0%), 우리나라(46.4%), OECD 평균(58.9%) 대비 낮음



» (저축 증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저축 증가

-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이루어진 전면적인 개방으로 계획경제 시기 대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저축률이 2000년 35.7%에서 2009년 50.4%까지 상승
 - 2010년 이후 중국 저축률은 소폭 감소하여 2020년 기준 44.5%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중진국(32.2%), 선진국(22.6%) 및 세계 평균(26.0%)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중국 도·농민의 저축예금 잔액 역시 2000년 약 6조 위안에서 2009년 약 26조 위안, 2019년 약 81조 위안으로 12.6배 가량 상승

* 주민저축예금잔액은 주민들의 미래 소비를 위한 준비로 불확실성에 대한 수요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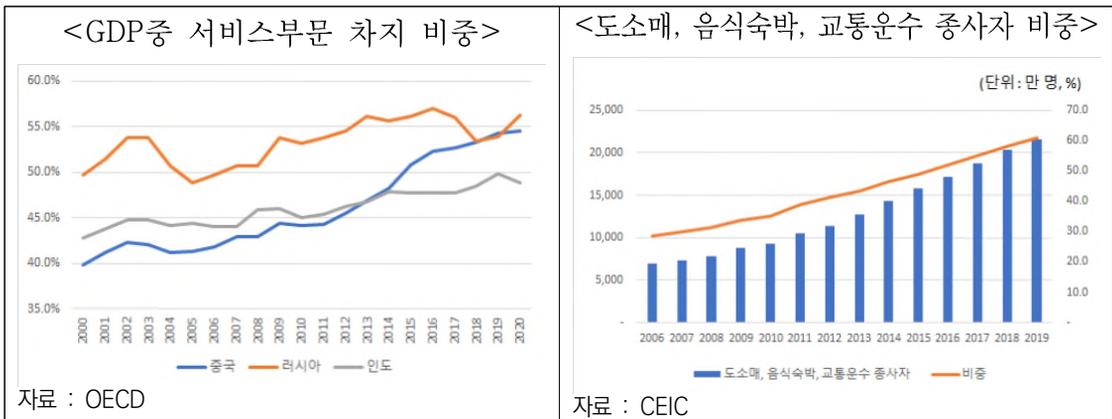


» (서비스 부진)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부진했으며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중국의 서비스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9.8%에서 2009년 44.4%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러시아(53.8%) 인도(46.0%) 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이후 중국 서비스 부문의 GDP차지 비중은 지속 상승하여 2019년 54.3%까지 상승하였으나 서비스 산업내 저부가가치 업종 종사자 비중이 2006년 28.6%에서 2019년 60.9%까지 상승하여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2차 산업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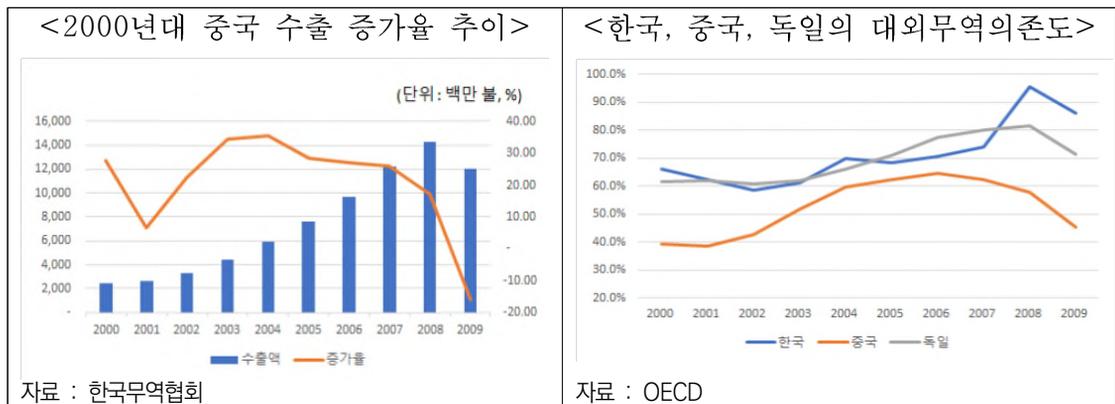
*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통운수업



<3>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형성

» (높은 대외의존도)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아져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형성

-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2000년 39.4%에서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7년 62.2%까지 약 22.8%p 상승
- 2000~2008년까지 연평균 24.4%의 성장률을 보이던 중국 수출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2009년 16.0%p 급감하며 중국경제에 큰 충격을 줌



» (저부가가치 가공무역) 가공무역 역시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

- 2000년대 중국 무역의 약 45.7%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공무역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일부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저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축적 및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음
- 또한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성이 낮아 대내적으로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저가제품의 대량 수출로 인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초래하여 미국, 유럽 등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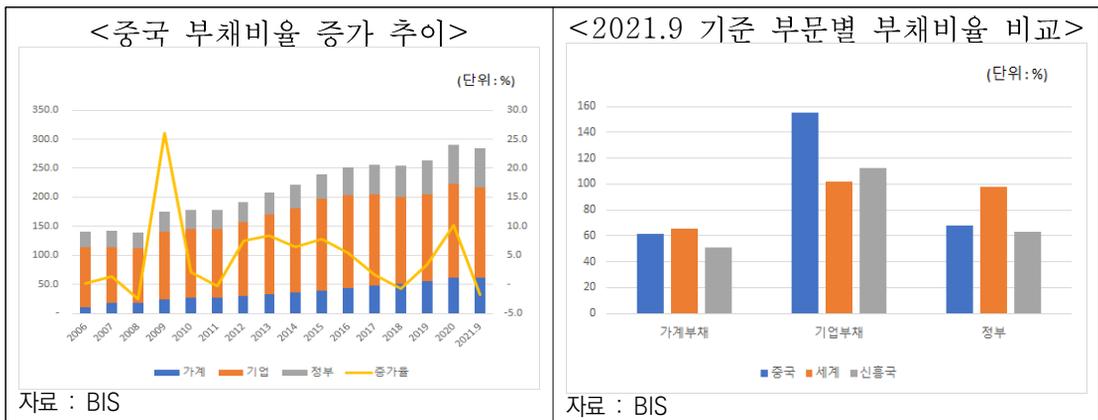
<4> 부채비율 증가

» (매크로 레버리지 증가) 중국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부채비율(정부, 기업, 가계)이 크게 상승

○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중국정부는 4조 위안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2008년 GDP의 139.0% 수준이었던 중국 총 부채비율은 2009년 179.6%까지 급증

- 이후에도 중국의 총 부채비율은 지속 상승하여 2021년 9월 기준 284.7%까지 상승
- 특히 총 부채비율 중 기업 부채는 2007년 93.9%에서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18.4%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지속 상승하여 2021년 9월 155.5%*를 기록

* 이는 신흥국(112.5%), 세계평균(101.9%)보다 높은 수준



» (부동산 기업) 양적 팽창 과정에서 부동산 부문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부동산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는 중국 경제의 회색코볼소로 작용

○ 중국의 부동산 관련 경제활동은 2004년 19.3%에서 2009년 24.7%로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 상승하여 2021년에는 GDP의 28.8%*를 기록

*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시 스페인(25.0%)나 아일랜드(20.1%) 보다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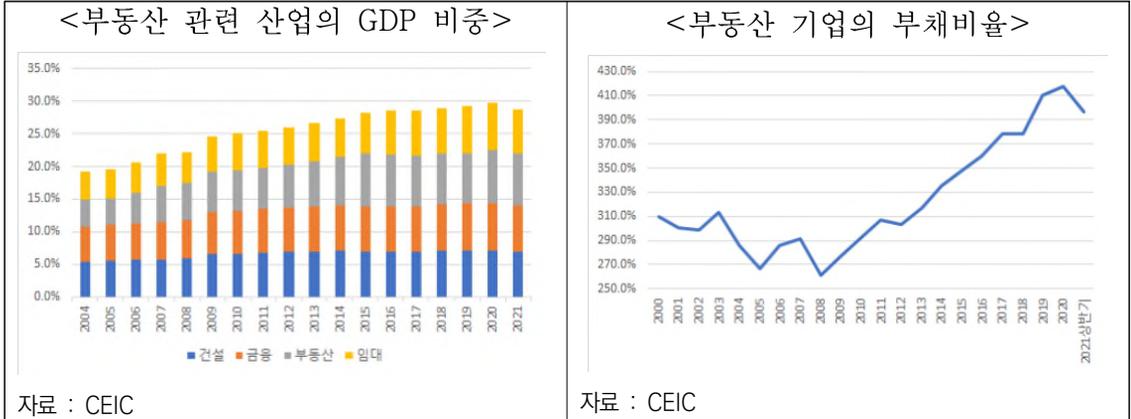
○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빠르게 상승하여 2000년 309.3%에서 2009년 277.0%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396.5%*를 기록

* 이는 제조업 기업 부채율(108.0%)보다 크게 높은 수준

- 부동산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은 중국 경제의 회색코블스로 작용하여 2021년 말 헝다그룹 발 부동산 위기를 초래

* 회색 코블스(Gray Rhino) : 예상 가능하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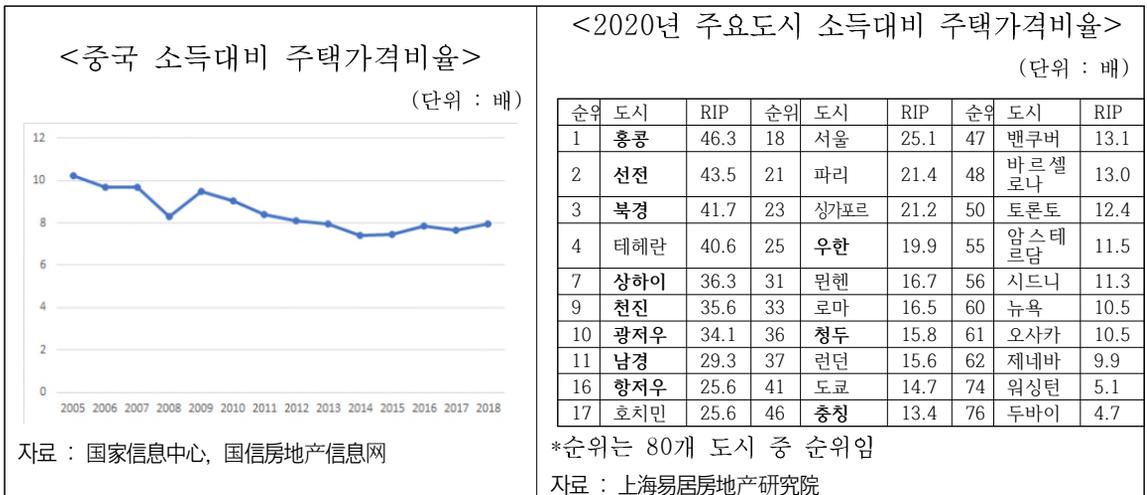
** 중국 부동산 2위 기업인 헝다그룹의 2021년 상반기 부채비율은 478.4%에 달함



» (부동산 버블) 부동산 버블 규모를 나타내는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RIP) 역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8.5배에 달하며 지속 높은 수준을 유지

* 세계은행은 합리적 수준을 3~6으로 간주함

- 양적성장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부동산 버블은 최근까지 그 규모를 계속 확장시켜 왔으며, 2020년 기준 중국 주요 도시들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은 선전 43.5, 북경 41.7, 상해 36.3, 천진 35.6 등으로 서울(25.1), 파리(21.4), 도쿄(14.7), 뉴욕(10.5)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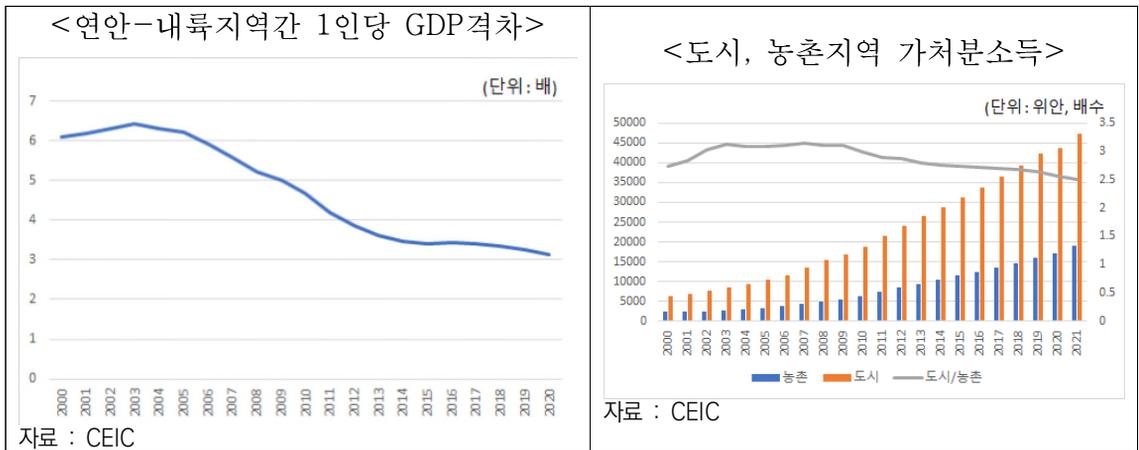
<5> 소득불균형 문제의 심화

» (소득불균형 심화 및 지속)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라 연안-내륙지역, 도시-농촌, 계층 소득불균형이 심화

-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라 연안지역과 내륙지역간의 격차는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5.0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0년대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도 3배 이상을 유지

* 연안지역은 북경, 상해, 천진을 내륙지역은 귀주, 운남 간수를 기준으로 비교

- 도시와 농촌간 1인당 가처분소득 격차는 2000년 2.74배에서 2009년 3.1배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기준 2.56배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임



- 계층간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역시 1999년 0.39에서 2009년 0.49배로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도 0.47을 기록

* 2019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3임

** 지니계수는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계수화 한 수치로 0~1사이의 값을 지니며,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 상태를, 1에 가까울수록 완전불평등 상태를 의미함. UN기준상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기준은 0.4임

<중국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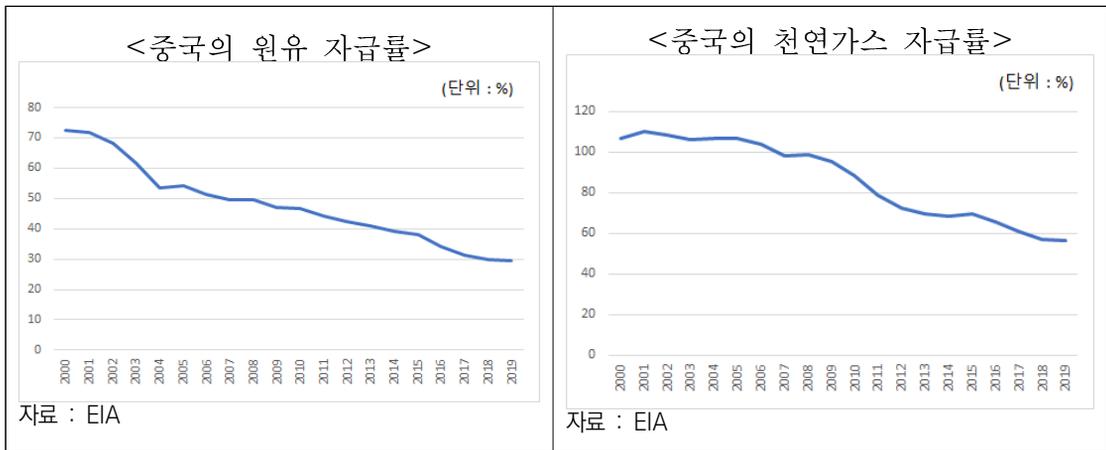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중국	0.39	0.47	0.49	0.47	0.47
미국	0.35	0.36	0.38	0.39	0.40
프랑스	0.28	0.28	0.29	0.29	0.29

자료 : OECD

<6> 자원고갈 및 환경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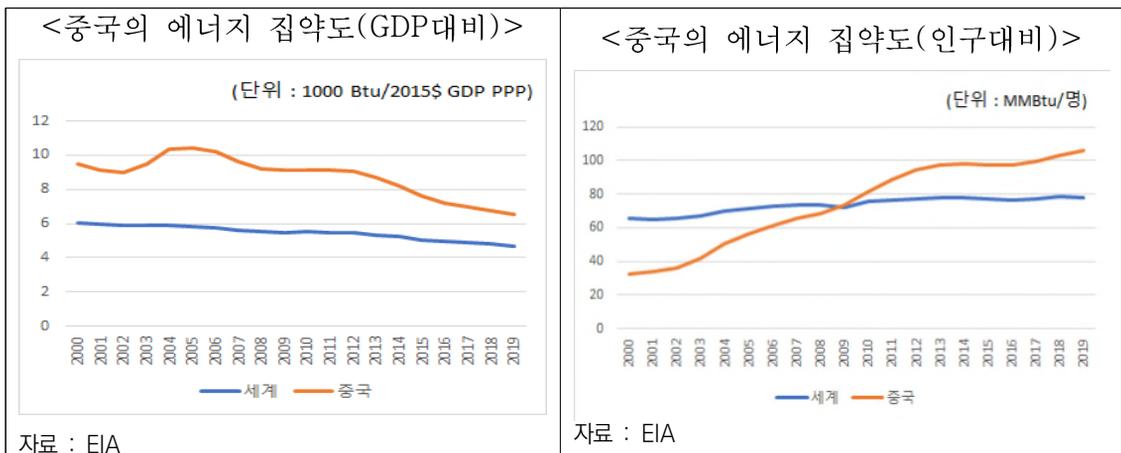
» (자원고갈) 중국은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생산활동으로 자원수요가 급증하여 원유와 천연가스 자급률이 하락

- 중국의 원유자급률은 2000년 72.4%에서 지속하락하여 2009년 47.0%, 2019년 29.4%를 기록하였으며, 천연가스 자급률 역시 2000년 106.6%에서 지속 하락하여 2009년 95.2%, 2019년 56.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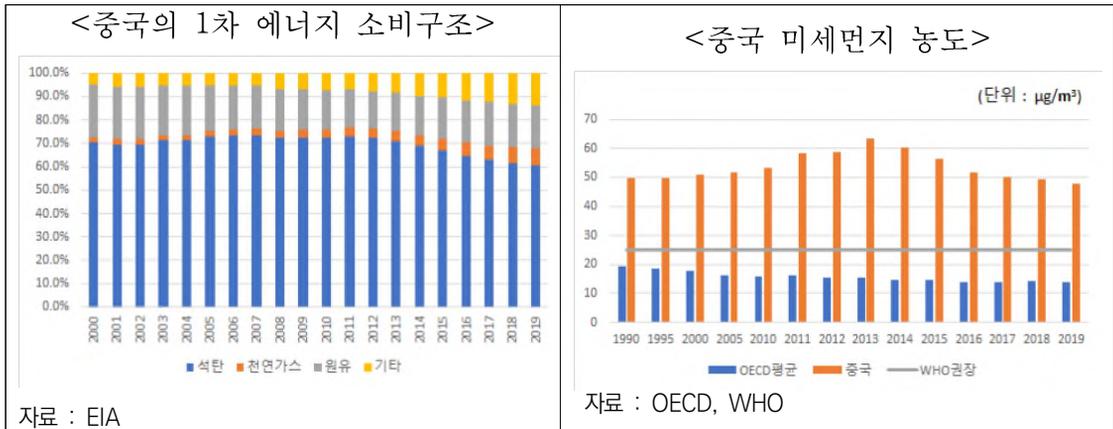
-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에너지 집약도* 역시 지속하여 세계 평균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인구 대비 에너지 집약도도 지속 상승하여 2009년 세계평균치를 상회

* 에너지집약도(Energy Intensity)는 국내총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



» (환경오염) 석탄의존적 산업구조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 중국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0.3%에서 2009년 72.5%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9년 기준 여전히 60% 수준
- 중국 미세먼지 농도는 1990년대 이후 WHO권장 기준을 지속 상회하여 대기오염이 심각



-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관련 지출은 2007년 996억 위안에서 2019년 6,333억 위안으로 약 6.4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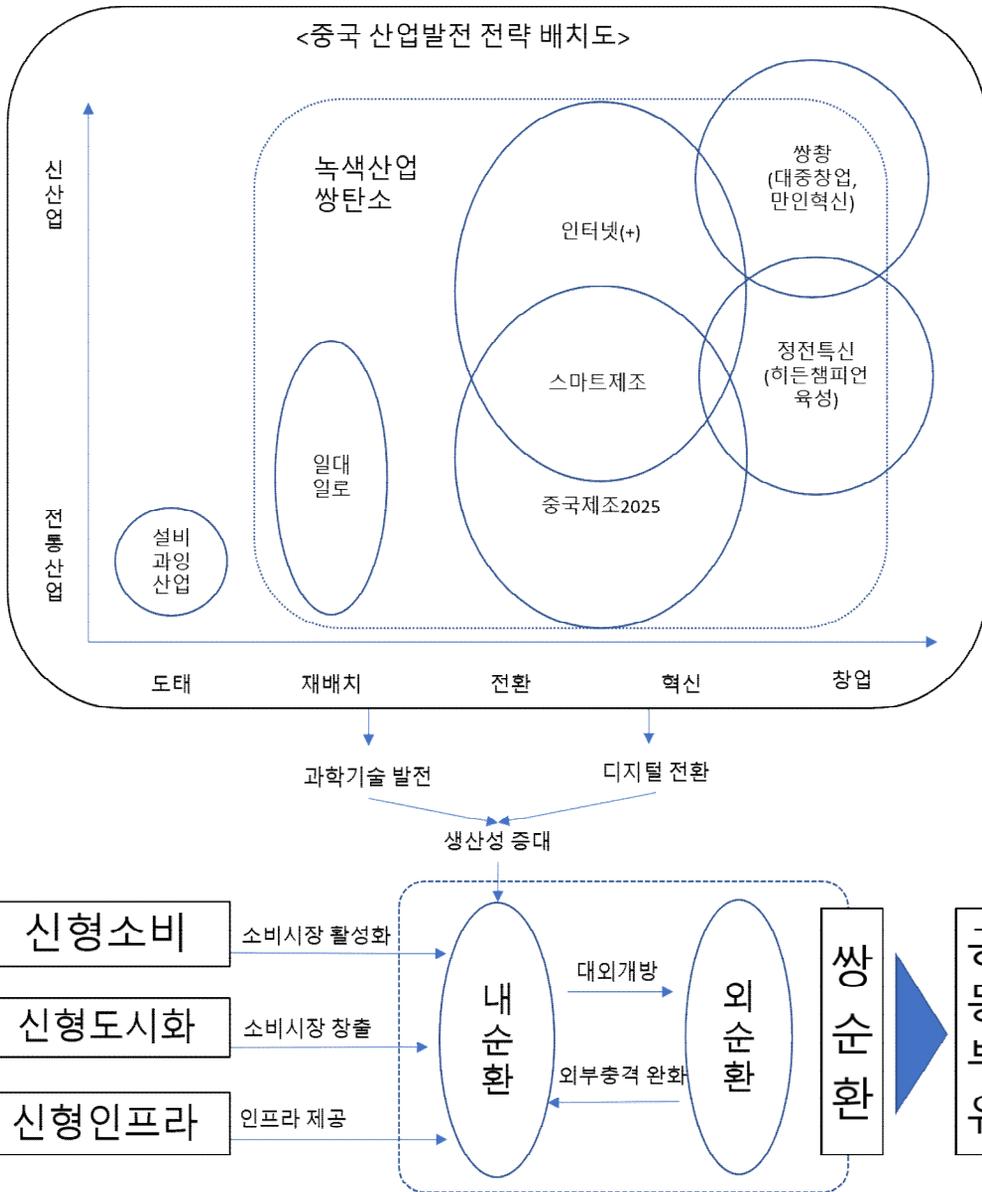


IV. 중국 경제의 질적성장으로의 전환(2010년대 이후)

1 질적성장 정책 개요

- ▶ (추진) 경제 구조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2005년 11차 5개년 계획(11.5계획)부터 제기되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지연됨
 - 이후 중국 정부는 2010년 12차 5개년 계획(이하 12.5계획)에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포함시키며 본격적인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시작
- ▶ (정책)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가 중속성장하는 신창타이(New Normal)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질적성장을 위한 산업, 환경, 창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 질적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전략적 신흥산업을 확대 개편하여 중국 제조업의 장기 비전을 제시한 중국제조2025와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인 인터넷플러스(+정책)를 시행하였으며 사회 전반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쌍창(대중창업, 만중창신)' 창업활성화 정책을 시행
 - 또한 균형발전을 통한 불균형 해소와 내수시장 활성화 및 4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형 도시화, 신형인프라, 신형소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산업 정책과 쌍탄소(탄소피크,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 ▶ (목표) 중국 정부는 다양한 질적성장 정책의 시행을 통해 쌍순환 전략의 내순환을 달성하고 나아가 공동부유 달성을 목표
 - 쌍순환 전략은 내순환(내수활성화)과 외순환(고부가가치 수출 중심의 대외경제 활성화)을 포함한 중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내순환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중국은 각종 산업정책과 신형소비·도시화·인프라 정책을 통해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한 내순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순환 중심의 쌍순환 전략 시행을 통해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인 공동부유를 달성코자 함

<중국 질적성장 정책 연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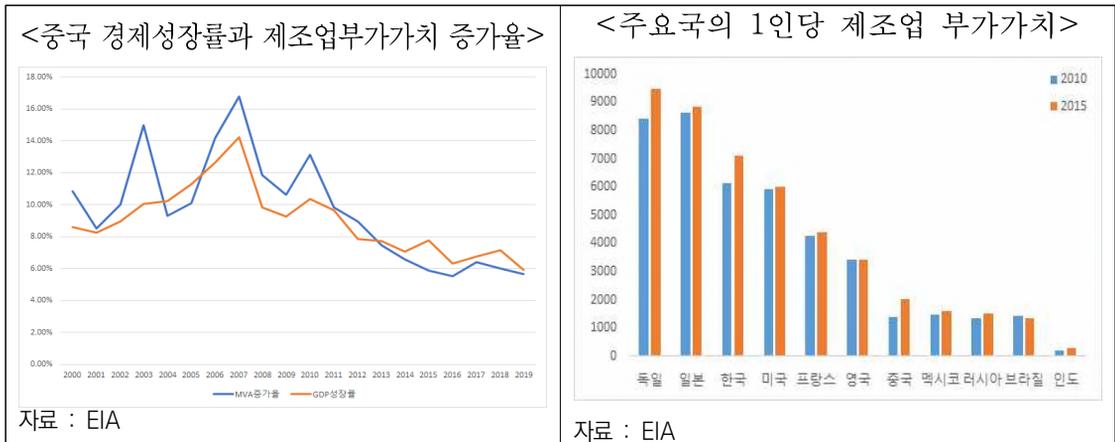
자료 : KIEP, LG경영연구원 등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주요 질적성장 정책

<1> 중국제조2025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 포함)

» (배경) 중국제조2025는 임금인상, 인구보너스 감소, 과잉생산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전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추진

- 중국 제조업 경쟁력은 2010년 이후 약화되기 시작하여 2014년부터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였으며 2015년 기준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역시 독일의 1/4, 미국의 1/3 수준으로 낮음



-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의 기술력 강화로 선진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며 주요국들은 각기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발표

* (독일) 독일 2020 첨단기술 전략, 공업 4.0, (영국) 영국제조 2050, (인도) Make in India, (일본) 기술전략도 2013 등

» (추진) 중국제조2025는 2045년까지 중국 제조업 혁신의 30년 로드맵으로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양회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처음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국무원 상무회의를 거쳐 2015년 5월 정식 공표

» (목표) 혁신역량, 질적성과, IT+제조업 융합, 녹색성장을 4대 핵심성과로 설정

» (주요내용) 3단계 추진 계획에 따라 10대 핵심산업과 11개 지침(5대 중점계획, 2대 특별 행동지침, 4대 발전계획)으로 구성

<중국제조2025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역량) 매출액 대비 R&D 비중 및 발명특허수 증가 - (질적성과) 제조품질경쟁력 강화, 부가가치율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 (IT+제조업) 인터넷보급률 제고, 디지털 R&D설계도구 보급, 핵심공정 컴퓨터수치제어 증가 - (녹색성장) 에너지 소모 감축, 탄소배출 감소, 수자원 사용 감축, 재활용률 증가 										
3단계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2015~2025)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제조강국 진입 - (2단계 : 2026~2035) 핵심성과 달성을 통한 제조강국 중간수준의 지위 확보 - (3단계 : 2035~2045) 선진기술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조강국 선두지위 확보 										
10대 핵심 산업	<table border="0"> <tr> <td>- 차세대 정보기술</td> <td>-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td> </tr> <tr> <td>- 고급수치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td> <td>- 전력설비</td> </tr> <tr> <td>- 항공우주 설비</td> <td>- 농업 기계설비</td> </tr> <tr> <td>- 해양 엔지니어 설비 및 첨단 선박</td> <td>- 신소재</td> </tr> <tr> <td>- 선진 궤도교통 설비</td> <td>-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td> </tr> </table>	- 차세대 정보기술	-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 고급수치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 전력설비	- 항공우주 설비	- 농업 기계설비	- 해양 엔지니어 설비 및 첨단 선박	- 신소재	- 선진 궤도교통 설비	-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 차세대 정보기술	-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 고급수치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 전력설비										
- 항공우주 설비	- 농업 기계설비										
- 해양 엔지니어 설비 및 첨단 선박	- 신소재										
- 선진 궤도교통 설비	-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11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중점계획) 제조혁신 능력센터 건설, 스마트 제조, 공업기반 강화, 친환경 제조, 첨단설비 혁신 - (2대 특별행동 지침) 장비 제조업 브랜드 창출 지침, 제조업의 서비스화 지침 - (4대 발전계획) 신소재산업, 정보산업, 의약산업, 제조업 인재 육성 										

자료 : KIET, 최근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

<참고 :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

-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은 중국제조2025의 전신으로 2010년 중국 국무원이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과 발전에 대한 결정]을 통해 처음 제시하고 2011년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나 2015년 중국제조2025로 흡수됨
-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임

» (추진경과) 분야별 성과 수준은 상이하며 수정 보완을 통해 지속 추진되고 있음

- (제조강국 발전지수) 중국 정부는 매해 발표하는 제조강국 발전지수를 통해 자국을 미국, 독일, 일본에 이은 4위 제조강국으로 평가함

* 중국 제조강국 발전지수는 규모발전 지수(가중치 19.51%), 품질수익 지수(29.31%), 구조 최적화지수(가중치 28.01%), 지속발전 지수(가중치 23.13%)를 토대로 중국 정부가 평가한 지수임

- **(R&D)** 2016~20년까지 최근 5년간 중국 R&D 투자 증가율은 약 11.7%이며,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미국의 약 54% 수준)

* R&D 수행 주체 : 기업 76.6%, 정부산하연구기관 14%, 대학 7.7% 순

<중국 R&D투자>

(단위 : 억 위안)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투자	10,298	11,847	13,016	14,170	15,677	17,606	19,678	22,144	24,393
기초연구	499	555	614	716	823	975	1,090	1,356	1,467
응용연구	1,162	1,269	1,399	1,529	1,610	1,849	2,191	2,499	2,757
개발연구	8,638	10,023	11,004	11,925	13,243	14,781	16,397	18,310	20,169

자료 : S&T GPS(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 **(특허)** 2020년 말 유효 특허 보유량은 인구 만 명당 15.8건(총 305.8만 건)으로 13.5규획 기간 목표치인 12건을 상회

* 특허 핵심기술인 5G 글로벌 유효특허부문에서 2021년 2월 기준 중국은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웨이 는 15.93%로 1위를 기록

- **(반도체)** 2020년 기준 중국의 자급률은 15.9%로 2020년 목표치인 40% 크게 미달

* 2020년 중국의 반도체 시장규모는 1,430억 달러이며 2025년 2,2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제조)** 국내시장 충족률 50% 이상을 달성하며 일정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스마트제조 주요 성과 : 스마트 제조장비 국내시장 충족률 50% 이상, 영업수입 10억 위안 이상의 시스템 공급망 전문기업 43개사, 스마트제조 시범운영 프로젝트 생산효율 45% 이상 제고, 제품연구개발 및 제작 주기 35% 감소, 제품불량률 평균 35% 감소

<참고³⁾ : 스마트제조>

스마트제조(知能製造)란 차세대정보기술과 선진제조 기술의 심층적 융합을 기초로 설계-생산-관리-서비스 등 제조 활동의 각 단계를 관통하는 자체감지-자체판단결정-자체집행-자체적용-자체학습 등의 특징을 갖추고 제조업의 품질을 제고하며 효율과 이익 및 핵심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진적 생산방식을 뜻함

<2> 인터넷 플러스(+) 정책

▶ (배경) 2000년대 중후반 인터넷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보급 및 인터넷 경제의 빠른 성장에 따라 경제 전반에 디지털 기술 접목 시도가 이루어짐

- 중국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2.98억 명으로 미국(2.3억 명)을 추월했으며 정책발표 전년도인 2014년에는 약 6.5억 명에 달함

<2005~2014년 중국 인터넷 보급률>

(단위 : 만 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용자수	11,100	13,700	21,000	29,800	38,400	45,730	51,310	56,400	61,758	64,875
보급률	8.5	10.5	16.0	22.6	28.9	34.3	38.3	42.1	45.8	47.9

자료 :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 또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발전으로 2013년 온라인 소비 규모가 약 3,000억 달러로 성장하며 미국(약 2,600억 달러)을 추월하였으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경제 전반이 빠르게 '현금없는 사회'로 전환되는 등 인터넷 경제가 빠르게 성장

▶ (추진) 인터넷 플러스(+)는 산업,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기 위해 2015년 7월 4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

▶ (목표) 경제발전, 사회발전, 기초인프라 구축, 디지털 환경조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

▶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 접목 11개 중점분야와 시행을 위한 6개 지원방안을 포함

<인터넷플러스(+)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표	- (경제발전) 산업 업그레이드, 노동생산성 제고,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 육성 - (사회발전) 의료, 교육 등 민생분야 인터넷 응용 확대 및 공공서비스 온오프라인 통합 - (기초인프라 구축) 차세대 이동통신망,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인프라 구축 - (디지털 환경조성) 디지털 융합 혁신에 대한 인식제고, 관련 법률 체계 완비			
11개 중점 분야	- 창업·혁신 - 제조 - 농업	- 에너지 - 금융 - 민생	- 물류 - 전자상거래 - 교통	- 생태환경 - 인공지능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기반확보) 광역 네트워크 설치, 연구개발 및 신기술 응용 강화, 차세대 정보인프라 구축, 안전규범 모니터링 강화 - (혁신촉진) 기업주도 산업혁신 네트워크 구축, 국가 혁신 플랫폼 개방, 인터넷-전통산업 융합 표준 제정, 지적권 보호, 국가 연구개발 성과 개방 - (환경완화) 규제 완화, 신용정보체계 개선, 개방형 공유 플랫폼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 (해외협력 강화) 기업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인터넷 응용 플랫폼 육성 - (인재육성) 인터넷플러스 관련 기초 및 고등교육 강화, 산학협력 지원, 글로벌 인재 유치 - (유인책 마련) 사회자본의 유입 유도, 세제 혜택 제공, 용자서비스 지원
-------	--

자료 : KIET, 인터넷플러스(+)

» (추진경과) 소비영역을 중심으로 성과가 두드러지며 향후 공급측면에서의 성과도출을 목표

-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지속 증가하여 2021년 6월 기준 인터넷 사용자수는 10.1억 명이며 보급률은 71.6% 수준

<2015~2021년 중국 인터넷 보급률>

(단위 : 만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용자수	68,826	73,125	77,198	82,851	90,359	98,899	10,1074
보급률	50.3	53.2	55.8	59.6	64.5	70.4	71.6

*2019년은 2020년 3월 수치임

자료 :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 전자상거래, 게임플랫폼, 검색엔진, 공유경제, 핀테크 등 소비영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중국 정부는 산업인터넷 부문을 집중 육성할 예정

- 이에 따라 중국의 산업인터넷의 GDP 기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약 10%에서 2024년 1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플러스(+정책의 시행으로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14년 16.2조 위안에서 2020년 39.2조 위안으로 성장하였으며 2025년까지 60조 위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

(단위 : 조 위안)

	2005	2008	2011	2014	2017	2018	2019	2020	2025(e)
규모	2.6	4.8	9.5	16.2	27.2	31.3	35.8	39.2	60.0

자료 : 中国信通院

<3> 창업활성화 정책(대중창업, 만중창업) 시행

- » (배경)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샤오미(Xiaomi) 등 창업기업들의 성공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창업붐이 일기 시작

-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창업붐으로 대학생 창업자 비중은 2010년 1.9%에서 정책 발표전인 2013년에는 약 5.1%까지 상승

<참고 : 중국 실업률과 창업활성화 정책>

-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2000년대 이후 4%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실업률은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중국의 실업률은 신고제로 실제 수준보다 낮게 집계됨

<중국 발표 실업률>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실업률(%)	3.1	3.6	4.0	4.3	4.2	4.2	4.1	4.0	4.2	4.3	4.1	4.1	4.1	4.1	4.1	4.1	4.0	3.9	3.8	3.6	4.2	4.0

- NBER(Natioan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는 2000년대 중국의 실제 실업률을 평균10.9% 수준으로 분석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소폭 하락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약 10%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
-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고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등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따른 추가적인 구조적 실업 발생 가능성은 중국의 창업활성화 정책의 시행 배경으로 작용

- ▶ (시행) 2014년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처음으로 ‘대중창업, 만중창신(대중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의성을 발휘한다)’ 구호를 통한 창업활성화 정책 시행을 언급한 후, 2015년부터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
- ▶ (목표) 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주도 발전 및 실업문제 대처
- ▶ (주요내용) 정책이념 확립 및 추진체계 수립, 창업 생태계 건설, 창업 업그레이드(기술-산업 융합, 고용확대 및 지역발전)

<쌍창(대중창업, 만중창신)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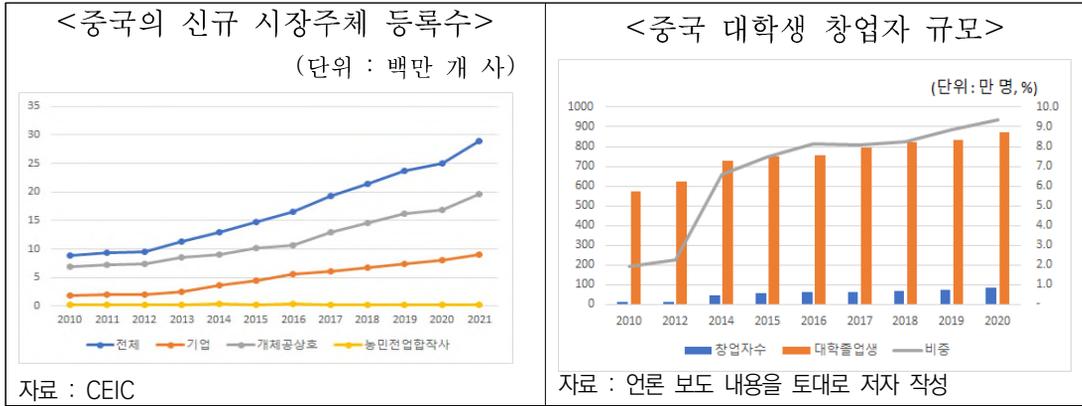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정책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9월)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 총리 쌍창(대중창업, 만중창신) 언급 - (15.3~9월) 쌍창 정책 시행을 위한 주요 방침 설정, 조직구성 등 기본 추진 체계 수립 (*2015.9 중국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간 연석회의제도 구성) - (15.10) 13.5 규획에서 혁신을 사오강 사회의 실현을 위한 발전이념으로 지정, 쌍창을 첫 번째 실현과제로 제시
창업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시범기지건설, 2016년) 28개 쌍창 시범기지(지역 17개, 대학 및 연구기관 4개, 기업 7개) 지정 - (2차 시범기지건설, 2017년) 92개 쌍창 시범기지(지역 45개, 대학 및 연구기관 26개, 기업 7개) 지정 - (3차 시범기지건설, 2020년) 92개 쌍창 시범기지(고용확대 25개, 혁신융합 27개, 린스타트업 32개, 글로벌창업 8개) 지정 * 3차 시범기지 건설은 중국은 시범기지별 특성 및 역할을 기준으로 고용 확대, 혁신융합, 린스타트업, 글로벌 창업 4개로 새롭게 구분 ** 린스타트업이란 아이디어를 반영한 시제품을 빠르게 출시하여 시장의 피드백을 취합하고 이를 다음 제품에 빠르게 반영하는 스타트업 전략
창업 업그 레이 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산업 융합) 창업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기술-산업 연계 강화 - (지역발전) 우수 인재들의 고향(지방)에서의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고용확대) 창업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유연한 지원제도 시행

자료 : 중국 국무원 발표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 ▶ (추진현황) 중국의 창업생태계는 지속 활성화되고 있으며, 중국 유니콘 기업수(창업 10년 이내 시가총액 1조원 이상)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차지
 - (신규 기업) 중국 신규 기업(기업, 개체상공호, 농민전업합작사 포함) 수는 지속 증가하여 2021년 전년 대비 15.4% 증가한 2,900만 개사가 신규 기업 등록
 - (대학생 창업) 2013년 5.1%였던 대학생 창업자 비중은 정책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20

년 기준 9.4%에 달함

* 2017년 한국의 대학생 창업비중은 0.8%임



○ **(유니콘 기업)** 2022년 4월 기준 전세계 유니콘 기업 1,074개사 중 중국 기업은 179개사로 미국(562개사)에 이어 2위

- 유니콘 기업중 기업가치 10조원 이상인 슈퍼 유니콘 기업 역시 55개 사 중 중국기업이 12개사로 미국(30개사)에 이어 2위

<전세계 유니콘 기업 현황>

	국가	유니콘 기업수
1	미국	562
2	중국	179
3	인도	65
4	영국	43
5	독일	26
6	프랑스	24
7	이스라엘	20
8	캐나다	19
9	브라질	16
10	한국, 싱가포르	12

자료 : CB Insight

<중국의 10대 슈퍼 유니콘 기업>

	기업명	기업가치 (10조 달러)
1	Bytedance(응용소프트웨어)	140
2	SHEIN(패션 전자상거래)	100
3	Xiaohongshu(전자상거래)	20
4	Yuanfudao(에듀테크)	15.5
5	DJI Innovations(드론)	15
6	Yuanqi Senlin(음료)	15
7	Bitmain Technologies(암호화폐)	12
8	Xingsheng Selected(공동구매플랫폼)	12
9	ZongMu Technology(자율주행)	11.4
10	Weilong(식품)	10.88
11	Chehaoduo(온라인 자동차 판매)	10

자료 : CB Insight

<4> 신형도시화 정책

- ▶ (배경) 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도시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소득불균형 문제 지속, 호적제도로 인한 농민공들의 도시 정착 제한 등 문제점들이 지속됨에 따라 보다 전면적인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 (시행) 2014.3 국무원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 발표
- ▶ (목표) 호적인구 기준의 도시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내수확대
- ▶ (주요내용) 호적제도 개편을 통한 호적인구 중심의 도시화 정책 시행, 19개 도시군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 연계 발전 및 도시-농촌 통합개발 추진

<중국 도시화 정책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중소도시형성	- (1978년) <도시건설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한 최초의 도시화 정책 시행 - (1990년대) 중소도시의 형성 및 농민의 도시 이주 추진
권역별 발전	- (2000년대) 서구대개발, 동부 노후 공업기지 진흥, 중부지역 굴기 등 권역별 발전전략 시행 - (2007년) 전국 도시 체계 계획을 통하여 13개 도시군 최초 지정
신형 도시화	- (2014년)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 발표를 통한 신형도시화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전국가 차원의 도시화 정책 시행 * 2020년까지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 60% 내외,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 45% 달성을 목표치로 제시 - (2016년) 1억 비호적 인구 도시 정착 추진방안 마련 - (2018년 이후) 신형도시화 정책 달성을 위한 세부 행동계획 수립 및 도시화 이행 추적관리 시스템 도입
호적제도 개편	- 300만 미만 도시의 도시 정착 제한 완전 철폐 - I형 대도시(300~500만), 특대형(500~1000만), 초대형도시(1000만 이상)의 포인트 적립제도 도입을 통한 도시 호적 지급 * 포인트 적립제도 : 사회보험비용 지급 연수 및 거주 연수 등을 기준으로 한 포인트 적립을 통하여 도시호적을 제공
19개 도시군 발전	- 효율적인 도시화 정책 수행을 위하여 19개 핵심 도시군을 지정 - 도시군 내부/도시간 종합교통운송 네트워크 건설을 통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발전 - 도시군별 특성에 따른 산업, 환경, 인프라 등 발전 계획 수립 및 이행

자료 : KIEP <중국 도시화 발전 40주년의 성과 및 전망>, 국무원 발표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5> 신형인프라 건설

- ▶ (배경) 전통산업 업그레이드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존 정책들 외에 추가적으로 4차 산업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외수요 급감 및 소비 부진 등이 이어지며 2020년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6.8%를 기록
- ▶ (시행) 2018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신형인프라가 언급된 후,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 신형인프라 건설을 포함시킴에 따라 본격 시행
 - 중국정부는 2020년 양회에서 역대 최대치의 적자재정(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3.6% 이상)을 편성하여 신형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계획을 수립
 - * 리커창 총리는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신형인프라 건설, 신형도시화 정책, 전통인프라 투자 정책을 신일중(两新一重) 정책으로 지칭하고 국가 중점 투자 프로젝트로 지정
- ▶ (목표) 4차 산업 관련 분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경기 하락을 막고 중장기적으로는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신형인프라는 크게 정보·융합·혁신인프라로 나뉘어지며 7대 분야(5G 통신, 고속/도시철도, 데이터센터, 산업인터넷, 전기차, 충전설비, AI, 특고압설비) 중심의 투자계획을 수립

<신형인프라투자 유형>

유형	주요내용 및 투자계획
정보 인프라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5G, 산업 IoT, 위성인터넷 등), 신기술 인프라(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데이터처리 인프라(데이터센터, 스마트컴퓨팅센터 등)를 포함
융합 인프라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한 인프라를 의미
혁신 인프라	과학연구, 기술개발, 제품의 연구·제조에 활용되는 공익성을 가진 인프라로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교육 인프라,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등을 포함

<신형인프라투자 7대 중점 분야>

구분	투자계획 및 주요 내용
AI, 데이터 센터	- (2020~30년 예상 투자액) 연평균 약 3,700억 위안(570억 달러) - 인공지능산업 규모는 2015년 112억 위안에서 2018년 약 415억 위안으로 연평균 54.6% 성장(세계평균 약 36%) - 데이터센터 캐비닛(랙) 규모는 2016년 124만대에서 2019년 227만대로 연평균 22.3%씩 성장
산업 인터넷	- (2020~30년 예상 투자액) 연평균 약 1,760억 위안(270억 달러) - 향후 하드웨어/산업인터넷플랫폼/응용APP 등 3개 분야 집중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유발효과 8,000억 위안 이상 달성을 목표 - 현재 산업인터넷 플랫폼 수 70개, 연결 산업기계 수 69만대, 산업APP수는 2,124개 이상이며 중국 정부는 2025년 국제수준의 산업인터넷 플랫폼 3~5개 건설을 목표
전기차 충전설비	- (2020~30년 예상 투자액) 연평균 약 325억 위안(50억 달러) - 향후 122만 개의 전기차 충전설비(사설 70만/공용 52만) 확충을 통한 전기차 1대 당 충전시설 비율 1:1 달성(현재 3:1)
5G 기지	- (2020~30년 예상 투자액) 연평균 약 2,275억 위안(350억 달러) - 2025년까지 5G 신규 기지국 360만기 건설하고 정보통신 기초인프라 관련 총 3.7억 위안 투자 예상 * 5G기지 수 : (2019년)13만 개, (2020년)71.6만 개, (2021.11) 115만 개
특고압 설비	- (2020~30년 예상 투자액) 연평균 약 520억 위안(80억 달러) - 특고압설비는 2020년 국가전력계획 핵심산업으로 2020년 기준 총 12개 전력선로 프로젝트가 수립 및 착공 중임
고속 및 도시철도	- (2020~30년 예상 투자액) 연평균 약 3,000억 위안(460억 달러) - 2020년 기준 승인받은 59개 도시철도 프로젝트(규모 9,700억 위안) 중 29개 시공 중이며 14.5규획에 따라 2025년 말까지 고속철도 12,000km 및 지하철 3,400km 신규증설이 계획됨 * 2019~2020년 철도 투자액 증가율 18%

자료 : 국무원, 중앙정치국회의, KIEP <중국의 신경제 육성정책의 특징과 투자 기회>, Morgan Stanley <New Infrastructure Opportunities Handbook>,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 (추진현황) 2020년 신형인프라 투자액은 약 1조 8천억 위안 수준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총 14조 위안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2020년 신형인프라 투자액은 총 1조 8천억 위안으로 고속철도(7,500억 위안), 특고압전력설비(4,300억 위안), 5G(3,000억 위안), 빅데이터센터(1,800억 위안), 산업인터넷(800억 위안), 인공지능(500억 위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100억 위안) 순
- 2020년 신형인프라 투자에 따른 1,2,3차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573억 위안(1.2%)

3.8조 위안(79.64%), 9,111억 위안(19.15%)으로 제조업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특히, 전자산업(6,737억 위안), 전기산업(5,778억 위안)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큼

* 이에 반해 2020년 전통인프라 투자의 전자·전기산업 유발 부가가치는 각각 726.31억 위안, 3320.11억 위안에 그침

- 한편, 신형인프라 투자는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수입 수요를 유발하여 전자통신 산업 관련 약 1,870억 위안의 수입을 유발시킴

* 2022년 전통인프라 투자에 따른 전자통신산업 부문의 수입 규모는 약 327.64억 위안

- 신형인프라 투자 정책은 신형도시화 정책, 신형소비 정책 등과의 연계를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소비주도 성장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인 만큼, 정부 주도로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총 14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6> 신형소비

» (배경) 2010년 이후 소매 판매 증가율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비시장이 침체 됨에 따라 소비시장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

- 중국은 11.5규획(2006~2010)을 통해 소비시장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12.5규획(2011~2015)을 통해 본격적인 소비시장 활성화 전략을 추진

- 이에 따라 2006~2015년(11.5, 12.5규획 기간) 중국 소매 판매의 연평균 성장률은 15.8%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0년부터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속 하락하여 2018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 수 증가율(8.8%)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시행) 2020년 9월 중국 국무원의 <신업태 신모델이 이끄는 신형소비 발전 의견>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2021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8개 부처에서 <신형소비 육성 촉진 실시방안>의 발표를 통해 가속화

» (목표) 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한 내수회복 및 소비주도 성장모델 구축

» (내용) 온·오프라인 융합추진, 신형소비 인프라 건설 가속, 신형소비 발전요소 확보, 신형소비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책을 포함

* 신형소비 정책은 의료, 교육, 문화·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부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플러스(+정책,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등 정책들과의 연계성이 높음

<신형소비정책 분야별 주요내용>

① 온·오프라인 융합

구분	주요내용
새로운 형태 소매업	- 스마트 마트, 스마트 식당, 스마트 우체국, 스마트 서점 건설 -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한 소비자의 언택트 소비 경험의 확대 -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및 운영 능력 향상
의료	- 의료기관 인터페이스 개방을 통한 의료 부문 온-오프라인 통합 강화 - 응급 사망률이 높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스마트 모니터링 강화 - 5G 활용 지능형 진단키트, 검사 장비, 및 의료로봇 기술 개발
문화, 관광	- 문화산업,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스마트 관광명소 개발 - 디지털 아트, 가상현실 등 새로운 형태의 문화관광 소비 활동 촉진
교육	- 데이터, 정보, 멀티미디어 기반 교육으로의 변환 및 업그레이드 - 유비쿼터스 온라인 학습 개발 및 빈곤 지역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발전
스포츠	-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경기, 피트니스 지도, 컨설팅 등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산업 발전 - 다양한 스포츠 대회 브랜드 육성 및 온라인 스포츠 대회 개최

자료 : 국무원 정책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② 인프라 건설 가속

구분	주요내용
물류·전자 상거래	- 국제/국내 신속 배송을 위한 새로운 공급망 플랫폼 구축 - 전자상거래 실크로드(B2B해외직수출) 추진 및 국가수입무역촉진시범구 육성
의료	- 5G활용 이동병원, 응급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실습 지원 - 스마트 의료,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관리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병원 건설
문화, 관광	- 문화, 관광, 소비시범 도시 개발을 통한 새로운 문화, 관광, 소비 클러스터 건설
신형도시	- 스마트 거리·상업 지구·커뮤니티 및 도시 정보 모델(CIM) 구축 - 파급력이 크고 자원통합에 우위가 있는 핵심 소비도시의 건설 및 도시와 농촌간의 통합 강화 -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카의 연계를 통한 스마트 교통 네트워크 구축
농촌	- 유통장비, 창고, 기타 보관시설 개선 및 콜드체인 구축 심화 - 인터넷플러스(+ 적용을 통한 농촌 지역의 전자상거래 확대
차세대 정보 기반 시설	- 전국 통합 빅데이터 센터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 5G 네트워크망의 확대 및 교육 전용 네트워크망 구축

전기자동차, 차량인터넷	- 전국 주요 거점에 차량 인터넷 시범 구역 건설 가속화 - 상업 아울렛, 관광 명소 등에 최적화된 충전 시스템 배치
-----------------	--

자료 : 국무원 정책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③ 발전요소 확보

구분	주요내용
새로운 직업 개발 및 훈련 강화	- 새로운 직업분류 목록 지속 업데이트 - 새로운 직업종사자의 훈련 및 평가기반 마련 - 기업과 기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직종의 전문가 육성
신장비, 신설비 기술	- 스마트홈, 웨어러블 장치 기술 향상 - 무인 시스템(무인배송, 자율주행 등) 구축 및 차량 인터넷 통신서비스 시험 - 태양광 에너지 혁신 및 업그레이드 - 5G 기반 스마트 라디오, TV네트워크 구축, 초고화질 비디오 및 가상 현실 제품 개발 가속화 - 건설업에 스마트 기능을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건설기술 개발 촉진

자료 : 국무원 정책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④비즈니스환경 개선

구분	주요내용
제도	- 인터넷 의료(진단, 치료), 스마트 도시, 전기차 충전서비스, 국제 전자상거래, 원격 교육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표준 마련 - 기업 라이선스 취득 간소화, 인터넷 산업정책 개선, 새로운 형태의 고용자들의 이익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 - 신형 소비 촉진을 위한 토지 제도 개편, 플랫폼(배달, 콜택시, 전자상거래 등) 수수료 합리화 및 디지털 위안화 활성화
재정, 금융 지원 강화	- 지방정부 전용 채권 발행을 통한 신형 소비 지원 및 정부의 온라인 교육서비스 구매를 위한 가이드 마련 - 온라인 보험 서비스, 소비자 금융 상품 등의 개발을 통한 신형소비 관련 신용지원 강화
관리 감독	- 온라인 플랫폼 독점, 불공정 경쟁, 지적권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플랫폼(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등)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형소비 발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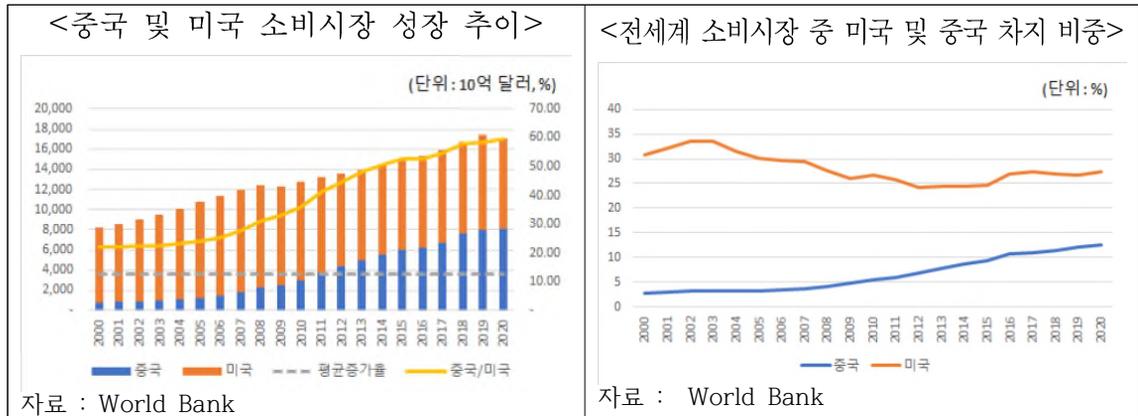
자료 : 국무원 정책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 **(추진현황) 현재 중국 소비시장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부침을 반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핵심 부문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소비시장은 2020년 5.6조 달러 규모로 미국의 39.9% 수준이며 세계 2위 소비시장으로 2030년에는 약 12.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소비시장은 2000년 미국의 8.4% 수준이었으나 이후 연평균 12.2%씩 성장하여 2013년부터 세계 2위가 되었으며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8%에서 2020년 12.0%로 증가

* 미국 소비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3.5%에서 2020년 30.0%로 3%p 하락



<참고 :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 현황>

-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
 - * 2010~21년 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구조 : 원자재 32.2%, 자본재 63.4%, 소비재 4.5%
- 직접소비재 수출 비중은 2010년 11.8%에서 2021년 18.9%로 상승
 - * 2010~21년 직접소비재 세부품목 수출증가율 : 음료 15.8%, 조제식료품 14.1%, 수산물 10.1%, 주류 및 담배 9.7%, 농축산물 7.5%
- 내구소비재 수출 비중은 2010년 65.7%에서 2021년 16.9%로 하락
 - * 2010~21년 직접소비재 세부품목 수출증감율 : 생활용품 2.4% 증가, 가전제품 4.9% 하락, 자동차 25.9% 하락
- 비내구소비재 수출 비중은 2010년 22.3%에서 2021년 64.3%로 상승
 - * 2010~21년 비내구소비재 세부품목 수출증가율 : 화장품 27.5%, 의류·신발·가방 4.3%, 기타 7.1%

* 소비재 구분은 관세청의 신성질별 기준에 따른 것임

<7> 환경 : 녹색산업, 쌍탄소 정책

- ▶▶ (배경)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문제 등 발생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보호 및 산업정책의 마련이 필요
- ▶▶ (시행)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 <녹색산업지도목록>과 2020년 탄소중립(쌍탄소) 정책을 발표

» (목표) 녹색산업 육성, 쌍탄소 정책 추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마련

» (주요내용) 6대 녹색산업 지정, 녹색산업 시범기지 지정 및 탄소중립 계획 수립

- 중국 정부는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4대 녹색산업 핵심산업 육성계획을 발표 후 2019년 <녹색산업지도목록> 발표를 통해 중점 산업을 6개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20년 관련 기술과 시범기지에 관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

<녹색산업 주요정책 추진>

정책	내용
제19차 당대회 (2017년)	- 녹색성장 필요성 강조 - 4대 핵심산업(녹색금융, 환경보호산업, 청정생산산업, 청정에너지산업) 육성계획 발표
녹색산업지도목록 발표 (2019년)	- 기존 4대 핵심산업을 6개로 확대 개편 - 6대 핵심산업 :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 청정생산산업, 청정에너지산업, 생태환경산업, 인프라 녹색 고도화 산업, 녹색 서비스산업
녹색기술보급목록 및 녹색산업시범기지 발표 (2020년)	- <녹색산업지도목록>의 6대 산업 분류에 따라 녹색기술의 명칭, 적용 범위, 핵심기술 및 공정, 효과 등을 명시 - 녹색산업 시범기지(31개) 지정

자료 : KIET, 녹색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6대 녹색산업 및 하위업종>

6대 녹색산업	하위 업종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7개 하위업종)	고효율 에너지절약 장비 제조, 선진 환경보호 장비 제조, 자원 순환이용 장비 제조, 신에너지차 및 녹색 선박 제조, 에너지절약 개조, 오염관리, 자원 순환 이용
청정생산산업 (5개 하위업종)	산업단지 녹색 고도화, 무독 무해 원료 대체 사용 및 위험 폐기물 관리, 생산과정 매연 처리 및 자원화 종합이용, 생산과정 절수와 폐수 처리 처치 및 자원화 종합이용, 생산과정 폐기물 처리 처치 및 자원화 종합이용
청정에너지산업 (4개 하위업종)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장비 제조, 청정에너지 시설 건설 및 운영, 전통 에너지 청정·고효율 이용, 에너지시스템 고효율 운행
생태환경산업 (3개 하위업종)	생태농업, 생태 보호, 생태복원
녹색 인프라 산업 (6개 하위업종)	건축 에너지절약 및 녹색건축, 녹색교통, 환경인프라, 도시 에너지 인프라, 스펀지 도시, 원림 녹화
녹색 서비스 산업 (5개 하위업종)	컨설팅 서비스, 프로젝트 운영 관리, 프로젝트 평가 회계감사 검사, 모니터링 검사·측정, 기술 제품 인증 및 보급

자료 : KIET, 녹색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제75차 UN총회에서 탄소중립 정책인 3060쌍탄소 정책을 발표
 - * 3060 쌍탄소 :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 이후 2021년 5월 탄소중립 업무 영도소조를 조직하였으며 10월 <탄소배출정점 및 탄소중립달성 업무의견>과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행동방안> 발표를 통해 쌍탄소 정책의 시기별 목표치와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

<쌍탄소 정책 목표>

시기	내용
탄소중립 정책기반 조성(2025년)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 감축 13.5%(2020년 대비) - GDP 단위당 탄소배출 감축 18%(2020년 대비) -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0% 내외
탄소배출 정점 (2030년)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 대폭 감소 - GDP 단위당 탄소배출 감축 65% 이상(2005년 대비) -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5% 내외
탄소중립 달성 (2050년)	- 탄소중립 달성 및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80% 이상 달성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쌍탄소 정책 분야별 추진계획>

분야	추진계획
에너지	- 에너지 효율성 개선, 에너지 소비량 및 배출 온실가스 관리 - 화석에너지 소비 관리 및 비화석에너지 발전 - 전기가격 시장화, 전력망 개선 등 에너지 체제 개혁
산업	-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개정을 통한 탄소 고배출 업종 투자 억제 - 철강, 비철금속, 건축재료,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생산규모 조절 -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 접목을 통한 녹색저탄소 산업발전
교통운수	- 종합 교통망 건설 가속화 등을 통한 운송구조 최적화 -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교통수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 지하철, 버스전용노선, 자전거 전용도로 등 저탄소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건설	- 도시 녹화를 제고, 농촌지역의 저탄소 발전 등 도농지역 저탄소화 발전 추진 -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약기준 상향, 에너지 효율 표시 등을 통한 저탄소 발전성과 평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 건물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북방지역 도시열병합 난방추진, 지열에너지 활용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 (추진현황) 2021년 중국 환경보호산업은 전년대비 약 16.1% 성장하였으며 향후 연평균 약 20%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환경보호산업 규모는 2020년 1조 9,300위안에서 2021년 2조 2,400위안으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연평균 약 20%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4조 6,800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엄격히 시행중에 있으며 206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 31%까지 상승 시킬 것을 목표
 - * 단, 중국의 높은 석탄의존도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조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중국정부는 원자력을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 구분하여 인프라를 증축 중에 있으며 향후 15년간 4,4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약 150기의 원자로 건설을 예정

<중국 에너지 구조 변환(2020~2060년)>

(단위 : %)

	태양광	풍력	수력	천연가스	원자력	바이오	수소	석탄
2020	11	13	17	5	2	3	0	49
2030	27	21	15	5	3	2	0	27
2060	47	31	10	4	3	2	3	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참고 : 요소수 대란>

- 탄소중립 정책 시행에 따라 석탄 생산이 줄어들자 석탄 등에서 추출되는 요소 등 화학비료의 생산량도 감소함
- 중국 정부는 자국수요를 우선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소 등 화학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급제한으로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이 발생함
- 2021년 말 기준 중국 검역 강화 대상 품목들 중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는 요소(66.6%, 2.8억 불), 비료용 염화암모늄(53.8%, 1.1억 불),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81.6%, 3.6천만 불) 등이 있음

V.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 변화 제언

- » (진출전략) 중국의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1>소비시장 공략 세분화, <2>도시군 특성별 맞춤 진출, <3>창업생태계 활용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 등의 새로운 진출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

<질적성장을 고려한 중국 진출전략>

<1> 소비시장 공략 세분화	①제품의 스마트화 ②급증하는 온라인 소비 ③다양한 유형별 소비자군 ④3선 이하 도시와 농촌지역의 높은 잠재력 ⑤귀차오(애국소비) ⑥건강중시 등 중국 소비시장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2> 도시군 특성별 맞춤 진출	5대 핵심 도시군(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징진지, 청위, 장강중)의 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과 도시병, 귀농 농민공 현상 등을 고려한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
<3> 창업생태계 활용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	중국 핵심 창업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의 혁신기업 및 창업 생태계를 활용한 중국 진출전략 수립

<1> 중국 소비시장 공략 세분화를 통한 진출 확대 방안

- » (중소비시장 특징) ①제품의 스마트화 ②급증하는 온라인 소비 ③다양한 유형별 소비자군 ④농촌지역의 높은 잠재력 ⑤귀차오(애국소비) ⑥건강중시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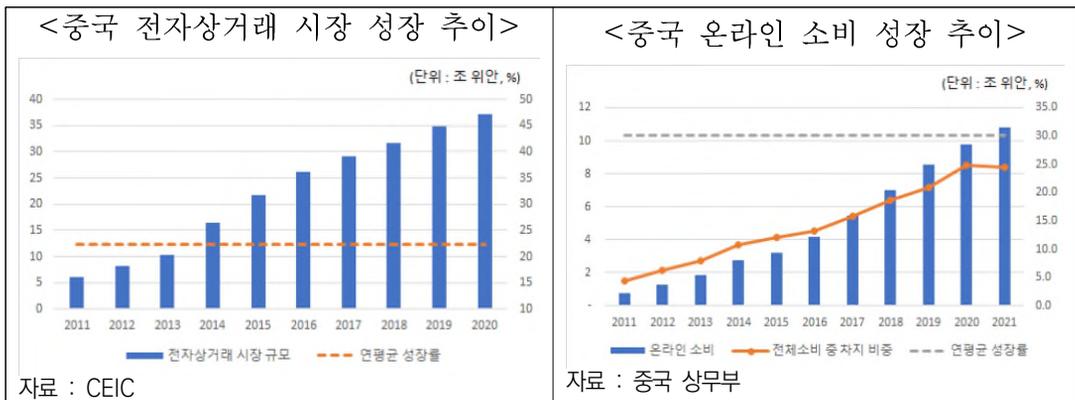
① 제품의 스마트화

- 중국 소비시장은 기술력 발전과 인터넷플러스(+), 신형소비 등 정책에 따라 제품의 스마트화가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20년 중국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약 2,064억 위안으로 2019년 대비 약 45.2% 성장하였으며 2035년 5,176억 위안 규모로 성장 전망

- 특히 중국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MZ세대의 소형 스마트 가전제품 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 중국 대표 가전제품 판매 플랫폼 기업인 수닝에서 MZ세대의 2019년 대비 2020년 스마트 제품의 판매 증가율을 보면 스마트 빨래 건조대는 899%, 로보청소기 2,840%, 스마트 스피커 686%, 쓰레기 처리기 560%, 스마트 세척기 314%, 스마트 쓰레기통 295% 등 급격히 증가

②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

- 중국은 2010년대 이루어진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온라인 소비가 빠르게 활성화됨
- 2011~2020년까지 년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평균 22.3%씩 성장하여 2020년 37.2조 위안에 달함
- 이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소비 역시 2011~2021년까지 연평균 30.1%씩 성장하였으며 2021년 10.8조 위안으로 전체 소비의 약 24.5%를 차지



- 중국 온라인 소비자 규모는 약 6억 명으로 전 세계 온라인 소비자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율 역시 86%로 세계 1위
-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현상을 뜻하는 란런경제 (懒人: 게으른 사람들을 의미) 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함

- 특히 MZ세대는 관련경제의 주요 활동 주체로 향후 MZ세대의 소득 증가에 따라 온라인 소비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발전에 따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C2M(Consumer to Manufacturing)모델 등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C2M(Consumer to Manufacturing)>

- 브랜드사와 공장들이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공장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방식
- 알리바바, 징둥, 핀둬둬, 비야오 등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소비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OEM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제작, 판매하며 중국 C2M을 주도
- 중국 C2M시장은 2018년 175억 위안 규모에서 2022년 420억 위안 규모로 약 24.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3월 8일 여성의 날 타오바오를 통해 이루어진 C2M 주문량은 전년대비 370% 증가하였으며 쇼핑축제인 6월 18일 징둥닷컴의 C2M주문량은 전년대비 622% 증가

<중국 C2M 플랫폼>

플랫폼	비야오상청 (必要商城)	핀공장 (拼工厂)	타오바오 특가판 (淘宝特价款)	왕이엔쉬엔 (网易严选)
출시	2014년	2018년	2020년	2016년
모기업	비야오(必要)	핀둬둬(拼多多)	알리바바(阿里巴巴)	넷이즈(网易)
비즈니스모델	마켓 플레이스	마켓 플레이스	마켓 플레이스	PB
OEM과의 관계	독자 브랜드	독자 브랜드	독자 브랜드	위탁가공

자료 : kotra

③ 다양한 유형별 소비자군

- 중국의 소비자군은 세대별, 특성별로 다양하여 소비자군별 맞춤형 전략의 수립이 필요

<중국 세대별 소비자군 특징>

분류	특징	유망시장
Y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3.15억 명, (시장규모) 6.68조 위안 - 실용적이며 품질을 중요시하고 고급스러움을 선호함 -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저축보다 투자에 관심 높음 	-
Z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3.2억 명, (시장규모) 4.49억 위안 * 2035년까지 소비규모 약 16조 위안으로 성장 전망 - 디지털에 익숙하며 외관과 개인성을 중요시함 - 즐거움, 취미생활, 연애 중심의 소비 비중이 큼 	-

Z세대 모자(母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둔 95년 이하의 젊은 여성 소비집단 - 높은 교육 수준으로 차별화된 육아에 관심이 높으며 주요 구매채널은 육아전문 모바일앱(바오마 등)임 - 여성의 영양, 건강관리 제품에도 관심이 높으며 뷰티제품 소비 비중도 높은 수준 	보건식품, 뷰티제품, 스마트 육아용품, 영유아보조식품
엔즈징지 (颜值经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모, 외관을 중요시하는 95년생의 특징을 의미 - Z세대 여성의 37.1%가 매년 화장품에 3000위안 이상 지출 - 독특한 메이크업 스타일 선호 비중 	색조 화장품, 의류, 디자인제품
반려동물 경제 (宠物经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앱 이용자 중 MZ세대 차지 비중 40.1% - 반려동물 관련 평균지출은 95허우가 90허우의 2.1배 - 특히, 95허우 여성의 지출은 남성 대비 5배 가량 높음 	반려동물 간식, 옷, 장남감
새로운 고령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약 3억 명, (시장규모) 7조 위안 *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50년 5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18.3조 위안 규모로 성장 예상 -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소비성향이 강하며 온라인 쇼핑에 익숙 - 문화생활 및 여행에 대한 선호 높음 	의료보건, 건강식품, 연금 자산 시장, 문화생활 및 여행

자료 : Kotra,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저자 정리

<중국 특성별 소비자군 특징>

분류	특징	유망시장
신중산층 경제 (新中产经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약 3억 명, (인당 월 평균 소비) 3,000~30,000위안 * 2025년까지 인구 5억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 고학력, 고소득층으로 가정이 있으며 과학기술, 매체, 통신, 금융 분야에 종사하고 합리성이 높은 것이 특징 - 부동산, 차량, 비즈니스 출장, 문화생활 관련 소비 비중이 크며 스마트한 소비를 지향함 	피트니스, 금융, 투자, 임대, 자동차, 문화레저, 자기개발, 자녀교육
소도시 출신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약 2.27억 명 - 3, 4선 이하 도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25~35세 인구 - 수입에는 한계가 있으나 신제품을 좋아하고 소비 욕구가 높음 - 핸드폰, 인터넷을 좋아하며 광고, 마케팅 효과가 크며 애국소비 성향이 강함 	가성비 스마트 IT제품, 뷰티제품, 문화레저
여성경제 (她经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약 4억 명, (시장규모) 10조 위안 - 여성 지위와 영향력 상승으로 새롭게 부상한 소비계층 - 온라인 쇼핑 의존도가 높으며 숏클립 동영상 최대 소비그룹 - 영화/드라마를 즐기며 온라인 채팅 참여율 높음 	뷰티미용, 건강, 패션아이템, 유아용품, 홈코노미(가사)
독신(1인) 경제 (单身经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거주하는 성인수) 7,700만명, (시장 규모) 15억 위안 * 2018년 기준 1인 가구는 2.4억 명 - 1, 2선 대도시에서 주로 분포하며 고학력 비중이 높음 -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으며 품질, 편의성, 미니멀리즘을 지향 	반려동물, 첨단IT 가전, 간편식품

자료 : Kotra,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저자 정리

④ 3선 이하 도시와 농촌지역의 높은 잠재력

- 중국의 총 337개 도시 중, 3선 이하 도시는 288개로 3선 이하 지방도시와 농촌지역에는 중국 전체인구의 68.5%에 해당하는 10억 명이 거주하고 있음
- 3선 이하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비시장 규모는 약 17.19조 위안으로 중국 전체 소비시장의 약 56.2%를 차지
 - * 소비시장 규모 : (1선 도시) 3.26조 위안, (신1선도시) 4.48조 위안, (2선 도시) 5.61조 위안, (3선 이하도시 및 농촌지역) 17.19조 위안
- 빠르게 증가하는 농촌지역의 온라인 소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농촌 지역의 온라인 소비는 1.7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약 19.1% 증가하였으며 2020년 3월 기준 농촌 지역의 온라인 소비자는 약 2.6억 명으로 2018년 대비 14.9% 상승

⑤ 귀차오(애국소비)

- 중국 애국소비를 뜻하는 귀차오 열풍은 중국 소비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MZ세대가 주도
- 귀차오 열풍에 따라 화장품 기업 상위 20개 중 중국기업은 2017년 6개사에서 2020년 8개사로 늘어났으며 의류 기업 역시 상위 10개사 중 6개가 중국기업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임

<주요 중국의 귀차오 관련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변화>

구분	기업명	2018		2019		2020		2021	
		점유율	성장률	점유율	성장률	점유율	성장률	점유율	성장률
화장품	이센	0.0	-	0.2	565.1	0.7	348.9	0.9	52.5
	저장이거	0.0	-	0.2	703.3	0.4	92.5	0.6	78.2
의류	안타	1.4	42.3	1.8	34.8	2.0	1.8	2.2	26.7
	선마	1.0	30.4	1.2	30.2	1.1	-15.5	1.2	19.9
	보스딩	0.5	17.0	0.6	18.0	0.7	9.8	0.7	21.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귀차오 열풍과 우리 소비재 기업의 대응전략

<중국기업의 대표적인 귀차오 활용 기업>

<p>화시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설립되었으며 동방과 꽃 성분의 색조화장품을 의미하는 “동방채장, 이화양장(东方彩妆, 以花养妆)”을 모토로 중국 전통 이미지 활용 - 중국 전통 공예품 디자인을 사용하여 중국 대표 귀차오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일본 아마존에 입점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 중 	
<p>안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설립 후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2009년 FILA의 중국 시장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후, “중국의 나이키”라 불리며 빠르게 성장 -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시를 시각적으로 디자인한 제품, 중국 고궁(자금성)을 모티브로 삼은 제품 출시 등 귀차오 열풍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귀차오 열풍과 우리 소비자 기업의 대응전략

- 해외 기업들 역시 귀차오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은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패를 경험

<귀차오 활용 기업 성공, 실패사례>

<p>성공 사례</p>	<p>로레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국가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박물관 소장품인 천추절염도를 토대로 제품을 디자인하고 각 색상의 명칭을 중국 5대 미녀의 이름으로 한 제품을 출시 	
<p>성공 사례</p>	<p>브레게 , 피아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인 브레게와 피아제는 임인년을 맞아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호랑이 디자인의 시계를 출시 	
<p>실패 사례</p>	<p>버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버리는 붉은색 복(福)자 새겨넣은 한정판 목도리를 출시하였으나 영국 헤리티지 브랜드와 복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중국 소비자들의 혹평을 받음 	
<p>실패 사례</p>	<p>나이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키는 부자가 된다는 발(發)과 복(福)자를 넣은 한정판 신발을 공개하였으나, 두 글자의 조합은 '살이 찌다'는 의미로 실패를 경험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귀차오 열풍과 우리 소비자 기업의 대응전략), daxue consulting,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⑥ 건강중시 성향

- 중국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로 건강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중국 헬스케어 시장은 2015년부터 연평균 약 13%씩 성장하여 2020년 약 13조 위안 규모로 성장함

* 2021년 유기농채소, 유기농 우유, 유기농 식용유의 온라인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127.0%, 24.1%, 21.8% 증가

<참고4> : 2020년 중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강문제 Top10>	
-	건강문제 Top10 : 스트레스(46%), 피부(42%), 몸매(38%), 수면(36%), 위장(31%), 구강(30%), 탈모(27%), 눈(27%), 관절(26%), 코(26%) 순
-	특히 탈모문제는 MZ세대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의 탈모인구는 약 2.5억 명으로 이중 80허우가 38.5%로 1위, 90허우가 36.1%로 2위를 차지

<2> 중국 신형도시화 정책에 따른 도시군 특성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 (중국 5대 도시군) ①장강삼각주 ②주강삼각주 ③징진지 ④청위 ⑤장강중

- 중국 신형도시화 정책은 중국 불균형 문제 해소와 소비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만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이에 도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필요

① 장강삼각주 진출유망 산업 : 금융, 인터넷 서비스, 중공업, 해상운송

개요	(면적) 21.3만km ² , (인구) 1.5억 명, (1인당 GDP) 11.2만 위안
주요도시	상하이, 항저우, 쑤저우, 난징, 허페이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기준 GDP대비 R&D지출 비중 2.8%(* 2018년 OECD국가 평균 2.4%) - 상하이는 전자, 자동차, 현대금융 산업이 전체 GDP의 58%를 차지 - 항저우 GDP 중 민간부분의 차지비중은 61%이며, 정보산업,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IT보안 등이 대표산업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분야가 경제 주도 - 쑤저우는 상하이와의 지리접 근접성으로 외자유치에 용이하여 90개의 글로벌 500대 기업이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의 제조업 기업이 분포 - 난징은 중국의 전통 공업지로 반도체 생산 핵심지로의 육성계획을 수립 - 허페이는 중국 가전제품의 핵심지로 세탁기, 냉장고 생산량이 각각 중국 총생산량의 20%, 30%를 차지

자료 : 恒大研究院

4) 한국무역협회, 중국 탈모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② 주강삼각주 진출유망 산업 : 금융, 혁신기술, 전문서비스 산업, 물류, 엔터테인먼트, 가전제품

개요	(면적) 5.6만km ² , (인구) 6,300만 명, (1인당 GDP) 12.9만 위안
주요도시	광저우, 선전, 포산, 자오칭, 중산, 장먼 등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5대 도시군 중 1인당 GDP 1위, 도시화율 1위(85.3%) - A+H주식시장 상장기업 시가총액 15.4조 위안으로 전체의 20.1%를 차지 - 2018년 GDP대비 R&D지출비중 2.6%(* 2018년 OECD국가 평균 2.4%) - 동쪽은 심천, 둥관, 헤주를 중심으로 IT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서쪽은 포산, 중산, 주하이, 광저우를 중심으로 전자·기계산업 클러스터 형성 - 홍콩, 마카오와의 연계를 통해 '광둥-홍콩-마카오 벨리(粵港澳大湾区)' 건설 중 - 광저우는 중국 철도, 항공의 허브이며 자동차, 전자, 화학 산업이 전체 산업생산량의 56%를 차지 - 선전은 주강삼각주 도시군의 금융, 무역, 혁신의 허브 도시 - 포산은 경공업, 장비제조업 산업이 중심이며 선진제조업 육성 계획을 수립 - 자오칭은 현대 농업체계 구축과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환승항구의 역할을 담당 - 중산과 장먼은 마카오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 엔터테인먼트,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

자료 : 恒大研究院

③ 징진지 진출유망 산업 : 물류, 자본설비, 문화산업, 연구개발, 항공우주산업

개요	(면적) 18.3만km ² , (인구) 1.1억 명, (1인당 GDP) 7.4만 위안
주요도시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H 주식시장 상장기업 가치 31.4조 위안으로 전체의 41.1% 차지 - 중공업 및 서비스업(기술, 물류, 정보, 금융 및 무역 관련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1, 2, 3차 산업비율은 4:36:60임 - 2018년 기준 GDP대비 R&D비용 지출 3.3%(* 2018년 OECD국가 평균 2.4%) - 베이징은 연구개발, 설계,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센터와 전략적신용산업(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의 거점으로의 역할 수행 중 - 톈진은 전국선진제조연구개발기지, 북방국제운항핵심지구, 금융혁신운영시범지구를 운영 - 다만, 허베이는 여전히 자원의존적인 산업 비중이 크며, 현대물류중점기지, 산업전환 및 업그레이드 시범구, 신형도시-농촌 통합 시범구 등을 운영

자료 : 恒大研究院

④ 청위 진출유망 산업 : 자본설비, 관광, 식음료, 자동차 부품

개요	(면적) 24.0만km ² , (인구) 1.0억 명, (1인당 GDP) 5.7만 위안
주요도시	청두, 충칭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서부대개발의 핵심지역으로 도시화율(53.8%)이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가장 높으나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징진지와 경제 격차가 큼 - A+H주식시장 상장기업의 가치는 1.7조 위안으로 전체의 2.2% 수준 - GDP대비 R&D 지출비중은 1.8%(* 2018년 OECD국가 평균 2.4%) - 전반적으로 슬로우 시티의 모습을 보이며 도시-농촌 조화발전의 요충지 *청두의 영화홍행은 수년째 4개의 일선 도시에 이은 5위를 차지 - 청두와 충칭의 주요산업은 전자, 자동차 산업으로 경쟁 관계에 있음 *전자·자동차 산업비중 : 청두 50%, 충칭 42% - 향후 충칭은 자동차 조립 및 부품 제조를 중심으로, 청두는 R&D 투자를 통한 핵심기술력 확보를 중심으로 성장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청두와 충칭을 제외하고 댜양(绵阳)만이 1인당 GDP가 약 6.2만 위안으로 6만 위안 이상이며 나머지 도시들은 대부분 6만 위안 이하 수준

자료 : 恒大研究院

⑤ 장강중 진출유망 산업 : 중공업, 자본설비, 소비재, 자동차 부품

개요	(면적) 34.3만km ² , (인구) 1.3억 명, (1인당 GDP) 6.6만 위안
주요도시	우한, 창샤, 난창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도시군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 - A+H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2조 위안으로 전체의 2.8% - 중국의 전통 공업지로 우한(武汉), 다예(大冶), 평샹(萍乡)은 주요 비철금속 생산지이며 대규모 철강기업들의 합병이 이루어져 초대형 철강기업들 소재 - 우한(武汉), 소간(孝感), 향범(襄樊), 스옌(十堰) 등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자동차 부품기업 간 협력 및 인수합병 등을 통해 중국의 핵심 자동차 부품 생산지로 부상할 가능성 있음 - 우한(武汉), 창샤(长沙), 난창(南昌), 주저우(株洲), 상양(襄阳), 징더전(景德镇)은 신소재, 신에너지,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기술력 향상에 집중 - 우한(武汉), 창샤(长沙), 난창(南昌)은 핵심 도시이지만 우한에 비해 경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우한과의 거리도 각각 300km, 260km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성장 동력이 떨어짐 - 또한 낮은 3차 산업비중(43.2%)으로 고용효과가 미비 * 3차 산업비중은 우한이 54.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북경(81.0%), 상하이(69.9%), 광저우(71.8%)에 비해 크게 낮음

자료 : 恒大研究院

» (기타) 도시화의 한계점 및 부작용 해소 관련 진출전략도 고려할 필요

- (도시병) 중국은 빠른 도시화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원부족 문제 등 도시병 관련 현상이 심각하여 농업기술 향상, 자원개발 및 에너지 효율화 분야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중국 인구는 전세계의 20%인 반면, 경작지는 7%, 수자원은 6% 수준
 - ** (도시병, City disease)은 개발도상국이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작지 유실, 환경오염 등을 포괄
- (귀농 농민공) 향후 5년 이내에 노동시장을 떠나는 농민공들이 약 7,5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귀농 농민공들을 대상으로 한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2020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63.9% 수준이나 호적인구 중심으로 한 도시화율은 2020년 45.4%로 낮은 수준임
 - 농민공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도시생활 비용 부담 등으로 도시 정착이 어려움
 - 2020년 기준 50세 이상 농민공은 약 7,550만 명으로 향후 5년 이내에 노동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륙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경험이 있는 귀농 농민공 대상 진출전략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3> 창업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진출방안 모색

» (중국 핵심 창업 도시) ① 베이징 ② 상하이 ③ 선전

- 2021년 전 세계 핵심 창업도시 중에는 베이징(4위), 상하이(8위), 선전(19위), 항저우(25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생 창업 비중이 9.4%에 달하는 만큼 중국 창업생태계는 활성화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 신흥 창업도시 100개 중 중국 도시로는 광저우(7위), 우시(10위), 난징(32위), 청두(34위), 우한(58위), 샤먼(74위), 텐진(85위)이 포함됨

<2021년 상위 20대 창업생태계 우수 도시>

순위	도시명	순위	도시명	순위	도시명	순위	도시명
1	실리콘밸리	6	LA	11	워싱턴DC	16	서울
2	뉴욕	7	텔아비브	12	파리	17	스톡홀름
2	런던	8	상하이	13	암스텔담	17	싱가포르
4	베이징	9	도쿄	14	토론토	19	선전
5	보스톤	10	시애틀	14	시카고	20	오스틴

자료 : GSER2021

-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공동부유 노선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는 한편, 창업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있는 만큼 중국 창업생태계를 활용하고 혁신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2021년 <전정특신 중소기업 고품질 발전에 관한 통지>를 통해 '전정특신'으로 불리는 중국판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 육성책을 중점 추진함

① 베이징 창업생태계 활용 유망 분야 : AI,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온라인 교육, 핀테크

개요	(총 펀딩규모) 101억 달러, (도시 창업생태계 가치) 4,450억 달러 (유니콘 기업) 93개
주요 특징	- 중관촌에는 10개의 AI연구소와 바이두, Sina그룹, 레노버를 포함한 9,000개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분포 - 그 중 AI회사는 1,070개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1/4을 차지 - 전 세계 핀테크의 핵심지로 JD Digits, Du Xiaoman(Baidu산하) 등 60개 이상의 유망 핀테크 기업이 자리하고 있음 - 팬데믹으로 온라인 교육 분야 급증
대표	- Yuanfudao, EdTech(온라인 교육 기업) 10억 달러 투자 유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iaomawang(유아용 교육 프로그램 기업) 2,100만 달러 투자 유치 - Beijing's Calorie Technology는 Keep Fitness 앱을 통해 유니콘 기업이 되었으며 약 2억 명의 유저를 보유
----	--

자료 : GSER2021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② 상하이 창업생태계 활용 유망 분야 : 핀테크, 게임, 전자상거래, 에듀테크

개요	(총 펀딩규모) 50억 달러, (도시 창업생태계 가치) 1,570억 달러 (유니콘 기업) 42개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간 협업을 통한 혁신 창출의 핵심지로 평가됨 - 중국의 금융허브이며 도시인구 2,500만 명, 25만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와 소비패턴을 보임 - 상하이의 Shanghai International New Cultural and Creative E-sports Center는 8억 9,820억 달러가 투입되어 50만sqm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League of Legends 월드 챔피언십의 개최를 통해 e-sports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 중 * 중국의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6억 명 규모
대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ovate motors(신에너지 차량 기업) 7억 3,585만 달러의 시리즈B 투자 유치 - Zhenkunhang(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기업) 3억 1,500만 달러의 시리즈E 투자 유치 - Lianbao(전자제품 R&D 및 제조 기업) 3억 1,000억 달러 투자 유치 - ByteDance(틱톡 개발사)는 Moonton(게임 개발사)을 40억 달러에 인수

자료 : GSER2021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③ 선전 창업생태계 활용 유망 분야 : 핀테크, AI,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디지털 전환

개요	(총 펀딩규모) 30억 달러 (도시 창업생태계 가치) 710억 달러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경제 부문이 도시 GDP의 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중국 평균은 10%) - 선전의 롱화구(龙华区)는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핵심지역으로 평가됨 -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 및 핀테크 연구소가 위치해 있음 * 연구소에서는 금융 중심의 도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 - 국제AI전시회 유치도시이며 전세계 AI핵심 연구기관 7곳을 공식 후원처로 둔 선전AI로봇기구가 위치해 있음 -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약 300개사가 선전에 투자하였으며 1km² 당 8.5개의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들이 위치해 있음 * 일평균 승인되는 특허 수는 약 71개에 달함 -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선전은 향후 5년간 광둥, 마카오, 홍콩 혁신의 중심점으로 역할 수행
대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llifusion(인공지능 기업) 1억 4,100만 달러 투자 유치 - SmartMore Technology(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3,100만 달러 시리즈B 투자 유치 및 1억 달러 시리즈A 투자 유치 - ArchForce Financial Technology(금융 테크 기업) 1,830만 달러의 시리즈B 투자 유치

자료 : GSER2021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VI. 결론 및 시사점

» 중국경제는 2000년대 WTO가입과 함께 투자-수출 주도의 양적성장을 이룸

- 2000년대 중국의 투자 부문은 연평균 23.8%씩 성장하며 중국의 고속성장을 견인함
 - 2000년대 중국의 투자는 주로 제조업(30.3%), 인프라(26.9%), 부동산(22.9%)에 집중됨
- 2000년대 중국의 수출, 수입은 각각 연평균 19.1%, 18.1%씩 증가하며 2009년 세계 1위 수출국이자 세계 2위 수입국으로 성장함

»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민간기업의 성장, FDI유치 정책, 가공무역제도 도입, 선부론에 근거한 불균형 발전전략은 중국의 투자-수출주도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중국의 급격한 양적성장을 가능케 함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대 8.9억 명에서 2009년 9.7억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도시유입 농민공 역시 2003년 1.1억 명에서 2009년까지 1.5억 명으로 증가하여 시장에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공급됨
- 민간기업 육성으로 중국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민간기업의 성장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
-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을 통해 2009년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FDI 유치국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족한 자본과 기술력을 흡수하고 고용을 창출
- 전략적인 가공무역제도 시행을 통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며 자국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빠르게 대외경제부문을 활성화시킴
- 선부론(‘능력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어도 좋다’는 중국 개혁개방의 기본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지속 시행

» 2000년대 중반부터 양적성장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함

-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과 지방정부·국유기업들의 실적달성을 위한 과잉·중복 투자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고, 생산가능한 인구의 감소와 빠른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가져왔으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뤄짐에 따라 총요소생산성도 하락
- 중국 경제에서 소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3.6%에서 2009년 50.1%로 하락하였으며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동 기간 46.7%에서 35.3%로 하락
- 서비스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9.8%에서 2009년 44.4%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는 러시아(53.8%) 인도(46.0%) 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수출 중심의 성장으로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2000년 39.4%에서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7년 62.2%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수출이 -16.0%로 급감하며 중국경제에 큰 충격을 줌
- 금융위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부채비율(정부, 기업, 가계)이 2008년 139.0%에서 2009년 175.1%까지 상승
-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라 연안-내륙간, 도시-농촌간, 계층간 소득불균형 문제가 심화됨
 - * 연안-내륙지역간 1인당 GDP격차는 2000년 6.1배에서 2009년 5.0배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격차를 보였으며 도시-농촌간 가처분소득은 2000년 2.7배에서 2009년 3.1배로, 지니계수는 1999년 0.39에서 2009년 0.49로 상승
- 중국은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자원고갈,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함
 - 중국의 원유 자급률은 2000년 72.4%에서 지속 하락하여 2009년 47.0%로 하락하였으며, 천연가스 자급률 역시 2000년 106.6%에서 2009년 95.2%,
 - * 중국 원유 자급률은 2000년 72.4%에서 2009년 47.0%로, 천연가스 자급률은 2000년 106.6%에서 2009년 95.2%로 감소하였으며, 석탄의존도가 높아 2013년 황사 현상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됨

» 중국 정부는 양적성장에 따른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2010년 12.5 계획시기부터 본격적인 질적성장 정책을 시행함

- 중국제조2025는 중국 제조업의 혁신 30년 로드맵으로 분야별 성과는 상이하나 지속 추진 중
 - * 2020년 중국의 R&D 투자규모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이며, 특허는 인구만 명당 15.8건으로 13.5규획 목표치(12건)를 달성하였으나, 반도체 자급률은 15.9%로 목표치인 40%에 크게 미달
- 인터넷플러스(+) 정책은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소비부문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산업인터넷 부문을 중점 육성할 것으로 전망됨
 - * 산업인터넷의 GDP성장 기여율은 2019년 약 10%에서 2024년 1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창업지원책인 쌍창 정책은 혁신주도 발전과 실업 문제 대처를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지속되는 창업붐으로 중국 창업생태계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됨
 - * 2022년 4월 기준 전세계 유니콘 기업 1,074개사 중 중국 기업은 179개 사로 2위이며, 슈퍼 유니콘 기업 역시 55개 사 중 12개사로 미국(30개사)에 이어 2위
- 신형도시화 정책은 호적인구 기준의 도시화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와 내수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시행되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도시군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 예정
 - * 2020년 기준 중국 도시화율은 63.8%,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45.4%로 목표치(도시화율 60%,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 45%)를 달성하였으나 주요국(미국 82.7%, 영국 83.9%, 프랑스 81.0%)에 비해 낮은 수준
- 신형인프라 정책은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낙후지역 발전 및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됨
 - * 2020년 신형인프라 투자는 1조 8천억 위안이 이루어졌으며 2030년까지 총 14조 위안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
- 신형소비 정책은 2010년 이후 소매판매 증가율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4차 사업 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내수회복 및 소비주도 성장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됨
 - * 중국의 소비시장은 2020년 5.6조 달러 규모로 세계 2위 규모이며 2030년 12.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녹색산업과 쌍탄소 정책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됨
 - * 중국은 쌍탄소 정책을 통해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하고 있으며, 2021년 2조 2,400위안 규모의 중국의 환경보호산업은 향후 연평균 약 20%씩 성장하여 2025년 4조 6,800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경제가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시장 공략을 세분화하고 도시군 특성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할 것과 중국의 창업생태계 활용 및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한 진출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

- 중국 소비시장은 제품의 스마트화, 온라인 소비의 급증, 다양한 유형별 소비자군, 농촌지역의 높은 잠재력, 귀차오(애국소비) 및 건강을 중시하는 등 다양한 특징이 있음
 - 중국은 기술력의 발전과 인터넷플러스(+), 신형소비 등 정책으로 제품의 스마트화가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온라인 소비는 2011~2021년까지 연평균 약 30.1%씩 성장하여 2021년 10.8조 위안으로 전체 소비의 24.5%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세대별(Y, Z, 고령층), 유형별(여성, 1인 경제, 신중산층 등) 다양한 특성의 소비자군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군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이 소비시장의 56.2%를 차지하는 만큼 해당 지역으로의 진출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애국소비를 뜻하는 귀차오는 중국 MZ세대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의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중국 문화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국 신형도시화 정책은 불균형 문제 해결, 소비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5대 핵심 도시군(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징진지, 청위, 장강중)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장강삼각주 도시군은 상하이, 항저우, 쑤저우, 난징, 허페이 등을 중심으로 금융, 인터넷 서비스, 중공업, 해상운송 등 부문으로의 진출이 유망
 - 주강삼각주 도시군은 광저우, 선전, 포산, 자오칭, 중산, 장먼 등을 중심으로 금융, 혁신기술, 전문서비스, 물류, 엔터테인먼트, 가전제품 등 부문으로의 진출이 유망
 - 징진진 도시군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을 중심으로 물류, 자본설비, 문화산업, 연구개발, 항공우주산업 등 부문으로의 진출이 유망
 - 청위 도시군은 청두와 충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설비, 관광, 식음료, 자동차 부품 산업 부문으로의 진출이 유망

- 장강중 도시군은 우한, 창샤, 난창을 중심으로 중공업, 자본설비, 소비재, 자동차 부품 등 부문으로의 진출이 유망
- 중국 창업생태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창업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세계 핵심 창업도시 중 중국은 베이징(4위), 상하이(8위), 선전(19위), 항저우(25위)가 포함됨
 - 2021년 기준 베이징의 총 펀딩규모는 101억 달러로 AI,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온라인 교육, 핀테크 등 분야의 창업생태계 활용이 유망
 - 2021년 기준 상하이의 총 펀딩규모는 50억 달러로 핀테크, 게임, 전자상거래, 에듀테크 등 분야의 창업생태계 활용이 유망
 - 2021년 기준 선전의 총 펀딩규모는 30억 달러로 핀테크, AI,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디지털 전환 등 분야의 창업생태계 활용이 유망
- » 중국 경제의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우리기업들의 중국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이에 따른 새로운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임
 - 최근 코로나의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화되는 대내외 여건은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이 4차 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확대를 통한 질적성장의 동력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는 만큼,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 기업들의 시각 변화와 중국의 질적성장 전략에 맞춘 새로운 진출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stat.kita.net/>)

中国政府网(<http://www.gov.cn/>)

中国国家统计局(<https://data.stats.gov.cn>)

中国商务部(<http://www.mofcom.gov.cn/>)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http://www.cnnic.net.cn/>)

CEIC(<https://insights.ceicdata.com>)

Statista(<https://www.statista.com/>)

IC Insights(<https://www.icinsights.com/>)

UNCTAD(<https://www.unctad.org/>)

World Bank(<https://www.worldbank.org/>)

UNIDO(<https://www.unido.org/>)

WHO(<https://www.who.int/>)

EIA(<https://www.eia.gov/>)

BIS(<https://www.bis.org/>)

CB Insights(<https://www.cbinsights.com/>)

KOTRA(<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문헌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3,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무역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0.12, “중국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1, “스마트제조 발전 통해 제조업 강국 꿈꾸는 중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3.8,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 현황과 대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9.6, “중국 도시화 발전 40주년의 성과 및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0, “중국의 신경제 육성정책의 특징과 투자 기회”
- 산업연구원(KIET), 2019, “최신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
- 산업연구원(KIET), 2021.4, “중국 녹색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산업연구원(KIET), “인터넷플러스(+)”
- 이민자, 2009,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국식 발전모델”
- 한국무역협회, 2021,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2022, “중국의 귀차오(애국소비) 열풍과 우리 소비재 기업의 대응전략”
- Crunchbase, 2022.2,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GSER2021”
- LG경영연구원, 2015.4,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 Morgan Stanley, 2021.1, “Consumption 2030: At Your Service”
- Morgan Stanley, 2020.3, “New Infrastructure Opportunities Handbook”
- Shangfeng Zhang, Yaoxin Liu & Duen-Huang Huang, 2019.12, “Contribution of factor structure change to China’s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the time-varying elastic production function model”
- 国家信息中心, 国信房地产信息网, 2019, “2010-2018年分地区及城市房价收入比分析报告”
- 上海易居房地产研究院, 2020.5, “全球80成房价收入比研究报告”
- 中国信通院, 2021.4, “中国数字经济发展白皮书”
- 恒大研究院, 2019.7, “中国城市发展潜力排名:2019”